



	코스피	2267.25 (+27.56)		코스닥	688.25 (+11.73)
	금리 (미국 3년)	1.44 (+0.04)		환율 (원/달러)	1164.60 (-2.40) (22일)



[금융]
법정구속 피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기 경영 본격화
05

‘정의선의 혁신’ 통했다 현대차 매출 100兆 돌파

현대·기아차 2019 경영실적

신차·SUV 인기, 환율상승 효과
현대차, 창사이래 첫 매출 100조
기아차는 58조... 전년비 7.3%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의 혁신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첫 100조원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기아차 역시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SUV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해였다.

현대·기아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9년 경영실적 컨퍼런스’를 열고 지난해 연간 실적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수요 침체 속에도 고수익 신차종 판매 확대를 통한 판매 믹스 개선과 함께 환율 영향으로 한층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코나 등 SUV 판매 호조와 환율상승 효과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3조6847억원으로 전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진행된 2020년 신년회에서 세계 메시지를 통해 올해부터는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보다 52%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05조 7904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났다. 영업이익률은 3.5%로 1%포인트 상승했다. 순이익은 3조2648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판매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량 운영과 지속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

획이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도 국내시장 73만2000대, 해외시장 384만 4000대를 더한 총 457만 6000대를 수립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97억원으로 전년보다 73.6% 증가했으며, 매출은 58조1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다. 순이익은 1조8267억원으로 58% 증가했다. 기아차 실적 상승은 ‘북미 올해의 차(SUV 부문)’에 선정된 대형 SUV 텔루라이드, 인도와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SUV 셀토스 등이 이끌었다.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2019년 말부터 핵심 신차 출시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골든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이들 신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수익성을 지속 개선시킬 계획이다.

기아차는 올해 판매 목표로 지난해 실적 대비 4.9% 증가한 296만대(CKD 포함)로 잡았다. 국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2만대, 해외는 전년 실적 대비 약 6% 증가한 244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설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공항

22일 오후 설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벌써부터 살바싸움

최저임금연구회 개최 입장차만 확인
소상공인聯, 설문조사 통해 여론전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살바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는 30년 이상 유지해 온 해묵은 제도를 올해엔 반드시 뜯어고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차등 적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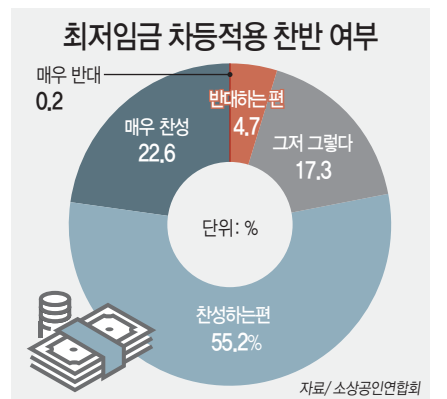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최저임금연구위원회는 올해 첫 만남 자리를 최근 가졌지만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7~8월께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숙박, 음식점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이 크다’는 답변도 25.8%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76.3%가 ‘반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7.8%가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답했다. ‘차등 적용 방법’에 대해선 업종별 > 규모별 > 지역별 순으로 많았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 하던 2017년 당시 경영계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실, PC방, 택시, 경비업 등 8개 영세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기됐던 내용은 같은 업종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여기에 정책 결정 당사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 몫 했다.

최저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계도 그동안 꾸준히 구분 적용 등을 통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연구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련 데이터 생산의 어려움, 비용 등 현실적 문제들만 거론했을 뿐 건설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이미 업종별, 사업자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놔고, 여기에 기업 규모까지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재정쏟아 지킨 2.0% 성장... 10년 만에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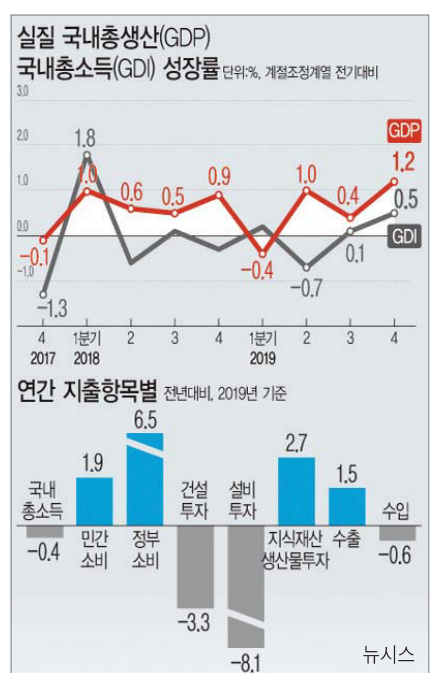
정부 성장률 기여도 1.5%p
민간 기여도는 0.5%p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그나마 연 2%대 성장률을 사수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투자는 바닥을 쳤고 수출과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1분기 -0.4%로 역성장한 뒤에 대한 저저효과로 2분기 1.0%로 반등했으나 3분기 0.4%로 주저앉으며 연 2%대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정부가 막판 부양에 나서며 4분기 1.2%를 기록, 연 2.0% 성장에 ‘턱걸이’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3.2%) 이후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전년(2.7%) 대비로는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성장률을 소수 둘째 자



리까지 보면 2.01%로 연 2%대를 겨우 사수했다.

◆ **정부가 밀어올린 연 2.0%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소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해 지난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1.9%로 1년 전(2.8%)보다 낮아졌다.

연간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1.5%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2.3%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사실상 지난해 성장률 2.0%는 정부가 메운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률 2%대 달성을 위해 상반기부터 재정집행에 나선 바 있다. 반대로 민간의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 **성장률 깎은 투자, 부진한 민간소비**
지난해 투자는 고꾸라지며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는 3.3% 감소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2012년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8.1% 감소해 2009년(8.1%) 이후 가장 낮았다.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여파가 컸다.

수출도 부진했다. 지난해 수출은 1.5% 성장하며 2015년(0.2%)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독자 여러분
즐거운 설 보내세요!**

거인의 퇴장... “나라 부름받고 경제부흥에 헌신” 추도

故 신격호 회장 그룹장 영결식

‘평생의 꿈’ 롯데월드몰서 열려
그룹 임직원 등 1400여명 참석
장지 울산 울주군 선영에 안장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영결식은 롯데그룹 임직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신정열씨가 영정을,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들 신유열씨가 위패를 들고 들어서며 시작됐다.

고인의 부인인 시계미즈 하츠코 여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영정을 뒤따랐다.

명예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흥구 전 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국토가 피폐하고 많은 국민이 굶주리던 시절 당신은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그룹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부인 시계미즈 하츠코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그룹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결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으로 운구행렬이 지나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을 향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당신이 일으킨 사업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강한 신념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직접 실천해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되새기게 된다”며 “당신의 큰 뜻이 널리 퍼지도록 남은 이들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회자가 대독한 추도문에서 “창업주께서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 조국의

부름을 받고 경제 부흥과 산업 발전에 혼쾌히 나섰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거목, 우리 삶이 어두웠던 시절 경제 성장의 앞날을 밝혀주었던 큰 별이었다”고 애도했다.

추모사가 끝난 뒤에는 신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도 한 마디씩 했다. 각각 유가족 대표, 롯데그룹 대표로서였다.

신 부회장은 “아버님은 자신의 분신인 롯데그룹 직원과 롯데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힘써오셨

다”며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선친의 발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다. 타지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끝에 성공을 거두시고 조국을 먼저 떠올렸고, 기업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했다”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기업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배웠다”고 했다.

신 회장은 “오늘의 롯데가 있기까지 아버지가 흘린 땀과 열정을 평생 기억하겠다”며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태산 같은 열정을 떠올리

며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운구 차량은 신 명예회장 평생의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돈 뒤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떠났다.

이날 자리에서는 유가족과 친지, 그룹 임원들이 차례로 꽃을 올렸다. 신 회장의 일대기도 상영됐다.

신 명예회장은 향년 9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을 모신 운구차량은 그의 평생의 숙원인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돈 후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향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소·부·장에 2.1조 지원... 日 의존 낮춘다

2020년 소·부·장 대책 시행계획 예산 2.5배 늘려 이달부터 집행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도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도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

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시험을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됐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포도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시험중이고,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 2조1000억원을 당장 1월부터 집행해 나가

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지난해 8325억원에서 2.5배 늘려 잡았다. 특히 외국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전체 예산의 약 57%인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150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소와 나노팜 등 15개의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 등 정부 연구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용수 기자 hys@

롯데그룹 임직원 일동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말씀

이번 고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상사시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것이 도리어 오나 아직 황망중에 있어
우선 지면을 빌려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부인 시계미즈 하츠코

아들 신동주 신동빈

딸 신영자 신유미

며느리 조은주 시계미즈 마나미

배상

우한 폐렴 확산... 설 연휴 '비상'

美·日 등서도 확진... 총 309명, 사망자 6명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넘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에 걸렸다. 국내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응 체계를 마련한데 분주한 상황이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일명 ‘우한 폐렴’ 확진자는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270명으로 늘어났고, 베이징과 상해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39명의 추가로 발생하며 총 309명으로 집계됐다. 중국내 사망자도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과 일본, 대만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한시에서 유입된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감염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황은 아직까지 안정적이다.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아직까지 1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음성으로 밝혀졌으며, 4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의 전파력이 메르스(중공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염증식 가천결핵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가 메르스는 0.4~0.9명, 사스는 4명으로 알려졌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환자 추이를 보면 메르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주를 지나 환자가 대거 발생한다면 사스 수준의 전파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과 환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전염 방식이 공기 전파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대부분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GV80’에 친환경차 앞세워 권역별 시장 공략 가속화

(제네시스 브랜드 첫 SUV)



현대차, 쏘나타 등 주력 신차 출시 제네시스 두번째 SUV 출격 준비 라인업 강화, 올 11만6000대 목표 중, 유럽 진출 등 수익성 지속 개선

기아차, 전기차 11종 풀라인업 등 글로벌 점유율 6.6% 달성 목표



현대차 제네시스의 첫 SUV ‘GV80’.



기아차 텔루라이드.

/기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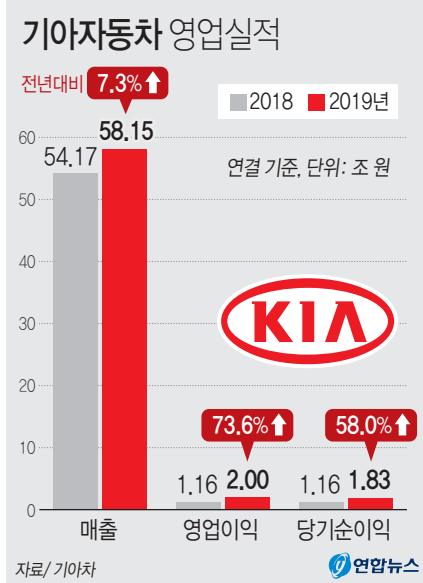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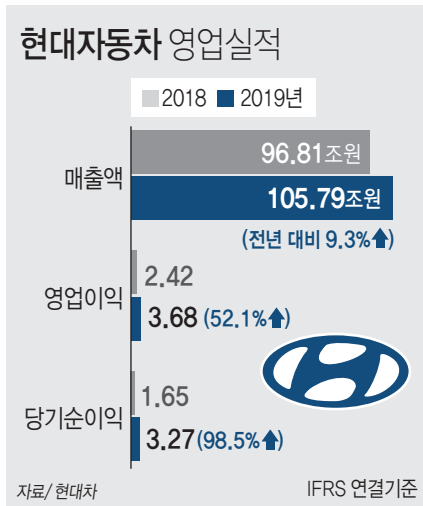
지난해 신차 효과와 우호적 환율 효과로 ‘깜짝 실적’을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올해도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기아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9년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향후 글로벌 시장 전략을 공유했다. 우선 현대차는 올해 제네시스 GV80 출시를 시작으로 아반떼, 투싼 등의 주력 모델 신차를 내세워 5%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며 거시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네시스 GV80 등 신차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현 현대차 경영본부장(전무)은 “올해도 주력 차종의 신차 출시와 제네시스 라인업 강화 등으로 영업이익률 5%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연초 제네시스 브랜드 첫 SUV로 내놓은 GV80가 출시 첫날 연 목표량의 절반인 1만5000대 넘게 계약되는 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제네시스 최고 인기 차종인 G80 완전변경(플체인지) 모델도 상반기 시장에 투입하고, GV80에 이은 두 번째 SUV 모델 GV70도 하반기 시장에 나온다. 현대차 준중형 대표 모델인 아반떼 완전변경 신차도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상반기 출격 대기 중이다.



작년처럼 저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권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장을 꾀한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인도는 판매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

망하고, 미국·서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 LMC 오토모티브 등은 지난해의 전세계 자동차 판매가 4%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 수요증가가 크게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 수요확대를 이끌었던 중국, 인도 시장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자동차 업체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미국에서 팰리세이드와 신형 쏘나타, 엘란트라, 제네시스 등 신차로 판매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주력 차종의 신차 출시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신차 투입과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 등으로 강화된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인도에서도 주력인 베뉴 등을 앞세워 실적회복에 나서고 러시아·브라질에서도 주력 차종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린다. 아태 지역에서는 생산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 전략을 구축하는 등 미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판매 목표를 11만6000대로 잡았다. 이용우 제네시스사업담당부사장은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이후 올해 처음으로 10만

대 판매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며 “올 상반기 GV80과 하반기 GV70 출시 등 SUV 라인업을 확대해 11만6000대 판매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제네시스 첫 SUV GV80이 출시 첫날 사전계약 1만5000대 돌파에 이어 꾸준히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판매량 확대를 위해 글로벌 마켓에 순차적으로 전용 거점을 확대 차별화된 서비스 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에 대해 우 부사장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럭셔리 시장과 친환경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제네시스는 G70, G80, G90 등 세단 라인업을 완성했고 최근 브랜드 최초 SUV GV80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국과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12월 벤츠 등 럭셔리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마커스 헨네를 CEO로 영입했다.

우 부사장은 “중국과 유럽 시장은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을 분석해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마커스 헨네의 진두 지휘 아래 제네시스 차이나 론칭을 위한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

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2019년 말부터 핵심 신차 출시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골든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이들 신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수익성을 지속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 판매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4.9% 증가한 296만대 (CKD 포함)로 잡았다. 국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2만대, 해외는 전년 실적 대비 약 6% 증가한 244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를 포함, 2025년까지 전차급에 걸쳐 전기차 11종의 풀라인업 구축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6.6%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선제적 전기차 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 등을 골자로 한 ‘Plan S’ 전략과 2025년 영업이익률 6% 라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기아차 유럽 환경 규제에 대해 “유럽 물량을 줄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으로 2만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줄어드는 차량은 모닝 등 일부 소형차로, 손익의 큰 차이를 주지 않는 모델”이라며 “손익의 일부 영향은 받으나 시장에서 격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글로벌비스, 비계열사 영업 通했다... 영업이익 23.4% 꺾춤



영업익 8756억, 연 매출 18.2조 당기순이익 5025억...14.9% ↑

완성차 해상운송 매출액 2조 돌파 비계열사 물량 늘면서 실적 개선 PCC부문 매출액 14배 이상 급증



현대글로벌비스 첸나이법원에서 인도 북·서부로 완성차를 운송하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현대글로벌비스

종합물류유통기업인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물류 영토 확장에 성공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 공략에 성공한 현

대글로벌비스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3.4% 늘어난 8756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연간 매출액은 18조2701억원

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5025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4조8024억원, 영업이익은 19.0% 증가한 2285억원, 순이익은 71.4% 증가한 2295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그동안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한 비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지난해 완성차 해상운송(PCC) 부문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비계열사 물량 비중은 2016년 40%에서 2017년 42%, 2018년 44%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PCC 사업 진출 당시 현대·기아차 물량 비중이 90%에 육박했

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대글로벌비스가 2008년 해운 사업에 처음 진출했던 당시 1423억원을 기록했던 PCC 부문 매출액이 11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자동차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글로벌비스가 PCC 부문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현대글로벌비스는 GM과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물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주당 3500원씩 총 1313억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에서 비계열사 물량이 증가하며 이익률과 실적이 개선됐다”며 “비자동차 물류사업 확대, 글로벌 화주 대상 영업 강화 등으로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순이익 '정점' 찍은 4대금융... 올해 **정부규제** **저금리** **경기부진** **이자감소** 가시발길

(2019년 12조)

DLF 사태로 비이자이익 위축
4분기 실적만 보면 수익성 ↓
“가계대출 성장 더 하락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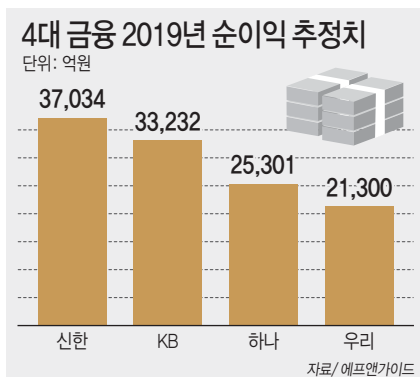
지난해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0조원(지주사 전환 이전 우리은행 포함)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연간 순이익이 지난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금융지주의 실적은 지난해가 정점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부진과 정부 규제,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자산을 크게 늘리기 힘든데다 금리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은 이미 지

난해 4분기부터 하락했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이익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1조 6866억원이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나란히 '순이익 3조 클럽'에 들었다.

'리딩뱅크' 경쟁에서는 2년 연속으로 신한지주가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3조 1983억원 대비 15.8% 증가한 3조 7034억원이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3조 619억원 대비 8.5% 증가한 3조

3232억원이다.

대신증권 박해진 연구원은 "상위권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이 3조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째 안정적으로 방어 중"이라며 "대손비용이 줄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시중은행들의 대손비용이 과거와 같이 조단위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2조 5301억원, 2조 130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했으며, 하나금융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역대급 실적에도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주가는 부진하게 움직였다. 올해부터는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미 연간 기준이 아닌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

박 연구원은 "은행 기준 지난해 4분기 순이자마진(NIM)이 4~5bp(1bp=0.01%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4분기 원화대출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1%대, 국민은행 2%, 그리고 우리은행은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이전됐기 때문에 가계대출 성장은 당초 전망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1조 9186억원이다.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배상과 지난해 말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 규모에 따라 은행별 실적도 일부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대훈 NH은행장 비상대응체계 점검
이대훈 NH농협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1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를 방문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은행

증권계 라임사태 책임 공방

“대표적 사기행위” vs “판매사도 피해자”

(투자자 법무법인 한누리)

(판매사 법무법인 화우)

한누리 라임사태 사기적 범죄행위 규정 화우 투자자 법적 분쟁 장기화 불가피

라임 사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증권계 '선수'로 불리는 두 로펌이 충돌한다. 법무법인 한누리(왼쪽)와 화우(오른쪽)가 주인공이다. 투자자들과 증권사·은행이 각각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일부 라임 투자자들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

◆'증권계 다툼' 한누리... 라임도 나섰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라임사태를 "사기적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 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팔아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다. 한누리는 "모 펀드 수익률과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했으며 투자대상과 수익률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며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새로운 시리즈 펀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증권계 집단소송 전문로펌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김상원(87·고등고시 8회) 전 대법관이 자신의 두 아들인 김주현(58·17기), 김주영(55·18기) 대표변호사와 1997년 법률사무소를 세워 200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투자자 집단소송 전문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형로펌이 꺼리는 개인투자자의 집단 소송에서 주로 활약했다. 송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현 변호사(왼쪽)와 송성현 변호사(오른쪽). /한누리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변호사(왼쪽)와 이주용 변호사(오른쪽). /화우

성현 변호사(43·36기)와 박필서 변호사(42·38기)도 증권집단소송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변호사 전원이 증권금융 관련 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다.

대표적으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과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RBC) 추가연계증권 소송을 맡았다. 2017년엔 도이치은행을 추가연계증권(ELS) 집단소송에서 꺾었다. RBC와 도이치은행 모두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때도 투자자의 집단소송을 도맡았다. 한 증권계 관계자는 한누리에 대해 "업계 '다윗'이라고 평가하며 '대형 로펌 초호화 변호인단보다 낫다'고 했다.

이번 라임 사건은 송성현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부문에서 선도적 관례를 다수 끌어내며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손실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자신의 정확한 손실률을 모르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대한 결단을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화우, 금감원 출신 다수 포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도 방어전에 나섰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정다툼을 준비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투자자와프(TRS) 계약을 맺어 3600억

원가량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우는 금융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띠고 있다. 화우 금융규제팀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가 여러 포진하고 있다. 금감원 1호 법무팀장을 지낸 이명수(65·29기) 경영전담변호사를 비롯해 이주용(48·32기), 정현석(50·33기), 제옥평(46·38기) 변호사 등이 모두 금감원 출신 인사다.

금융감독 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강점인 만큼 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리했다. 한누리라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대응이나 대주주 변경과 인허가에 대한 승인 업무를 비롯해 각종 금융 분쟁을 맡아 왔다.

화우 측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판매사인 라임자산운용에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법적 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사건이 복잡해 검찰에서도 배당하고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vin@

“영세 가맹점 27만곳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매출액 30억 이하)

금융위 우대 가맹점 선정 결과발표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번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상반기 우대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 4000곳에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270만 1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 2000개(75.1%), 중소기업가맹점은 58만 9000개(21%)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단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 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4000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총 21만 2000개 가맹점이다. 여기에는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다. 신용카드 452억원, 체크카드 127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으로, 단순 평균인 만큼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3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입금된다. 폐업 등으로 카드대금 지급계좌와 연락처가 변경된 환급대상 사업자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후 카드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환급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개최된 '농협금융 신년 경영전략회의'에서 '2019년 우수 계열사 시상식' 후 (왼쪽부터)배영훈 NH-아모디자산운용 대표,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NH농협금융, 미래 10년 '디자인' 경영 선포

중장기 전략·핵심실행과제 논의

NH농협금융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새로운 10년을 위한 2020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수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집행간부, NH미래혁신리더 등 NH농협금융그룹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난 10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전략방향과 2020년 핵심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김 회장은 NH농협금융의 향후 10년의 전략방향이 담긴 새로운 경영슬로건으로 '새로운 10년(New Decade)!' 디자인(DESIGN) NHFG!'를 선

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변화·혁신을 통해 농협금융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디자인 농협금융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變化) ▲경영체질 강화(強化) ▲사회와의 조화(調和)를 목표로 총 9개의 핵심전략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며 "피카소가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실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존 관행의 파괴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해 '디자인 농협금융'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법정구속 피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리스크 덜고 '2기 경영' 본격화

오는 3월 정기 주총서 정식 연임 일등 넘어 일류 도약 가속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법적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했다. 항소로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지만 앞서 연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의 '2기 경영체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그 동안에 (채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으로서 아쉬움이 남지만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2심 등을 거쳐 최고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법정구속만 아니라면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위원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

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다"며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린 만큼 조 회장은 2기 경영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올해를 일등을 넘어 일류(一流)로 도전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조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오늘날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一流)'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 3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해이자 일류신한을 향해 도전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판매 중단 사태에 연루되어 있고,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국내 금융사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승인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회동 경쟁력 강화 묘수 나올까

여신전문금융업과 29일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업계 CEO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업권별 CEO 간담회를 열고 업권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이달 9일 예정됐던 여전업계 CEO 간담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 측은 "여전업계 CEO 간담회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릴 여전업계 CEO들의 간담회에서는 주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여신(소액대출)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있다. 관련 핀테크사의 여신한도를 30~60만원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여신 등 신용공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해 반발하고 있다.

캐피탈 업계와는 부동산 리스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KB국민은행

"비대면 해외 송금시 경품"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비대면채널 해외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피 뉴이어(Happy New Y

ear) KB 해외 송금 감사 이벤트'는 리브(Liiv)나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의 해외 송금 거래를 이용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외국환은행지정등록을 한 후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 해외로 송금한 개인 고객은 경품 추첨 기회를 두 번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P2P금융법' 입법예고... 금융위 제도 정비

P2P금융업, 양분된 협회 통합 등록요건, 의무사항 등 세분화

8월로 예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계도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로 양분된 협회를 통합하고 법정협회로 출범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위규정에는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자기자본 연계 투자비용 및 일반 영업행위 의무사항 ▲투자·대출한도와 금융기관 연계 투자 시 상품별 투자한도 등이 보다 세분화된다.

현재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

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P2P금융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하고 최고금리(연 24%) 아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연계 대출시 모집금액의 40%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곳으로 분리돼 있던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도 법정협회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 21일 마켓플레이스협의회는 법정협회 설립을 위해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한국 P2P금융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협회 활동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다

P2P금융법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법인으로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P2P금융업체는 필수업무로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회원사에 대한 지도와 권고, 자율규제, 민원, 공시, 표준 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는 법정협회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정협회 설립 준비와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P2P 금융업체가 모두 가입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들어 공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11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었으며, 올 8월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銀 업계 최초 AI기반 제재법규 심사시스템

우리은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재법규 심사시스템을 시중은행 최초로 자체 구축하고, 이를 수출입 선적서류 심사업무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수출입 서류 분류부터 텍

스트 추출, 데이터 축적, 심사 프로세스 등을 자동화했으며 추가검증이나 심층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심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심사항목 자동추출 및 필터링 ▲통계적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자체 점검 ▲심사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미 금융당국이 아시아은행의 자금세탁방지규제 준수에 대한 감시수위를 높인 이후 국내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재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배치함으로써 미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영화·드라마·게임 무한확장... '황금알 낳는 웹툰 IP'

카카오, 네이버 웹툰IP 활용 활발
흥행시 원작 웹툰도 재조명 '원원'
지난해까지 영상판권계약 180건

잘 키운 웹툰 지식재산권(IP)이 영역을 무한 확장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웹툰에서 시작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 분야와 음악, 게임, 캐릭터 상품으로 나오는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오래전 나왔던 웹툰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는 최근 웹툰 '달빛조각사'의 OST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가수 이승철과 배우 박보검이 만나 주목을 받았다. 달빛조각사는 가상현실 게임 속 주인공이 달빛을 조각하는 직업을 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으로 카카오페이지의 대표 IP로 꼽힌다.

소설로 처음 나온 후 웹툰, 게임, 음악으로 만들어졌다. 소설이 흥행하면서 이후에도 성공 행보를 이어나가는



웹툰 이태원 클래스 이미지. /카카오페이지

것으로 하나의 좋은 IP를 확보하면 다른 형태의 작품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담보하게 되는 셈이다.

오래전 나왔던 웹툰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한다.

다음웹툰은 9년 전 나온 웹툰 '해치지않아'가 최근 영화로 개봉됨에 따라 원작 웹툰을 재편집해 새롭게 연재를 시작했다.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면

원작인 웹툰을 찾아보려는 사람이 늘어 자연스레 구독자와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경우, 지난 8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공개된 직후 일주일간 독자수가 전주 대비 14배 넘게 증가했고, 매출 역시 평일 동기간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웹툰은 2006년 최초의 웹툰 원작 영화였던 강풀 작가의 '아파트' 이후, 윤태호 작가의 '미생'을 드라마로 선보였으며, 훈(HUN)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영화로 695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성공적인 영상화 사례를 다수 만들어 왔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뤄진 영상 판권 계약은 누적 180여 건에 이른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해치지않아'를 비롯해,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메모리스트', '쌍갑포차'와 영화 '정상회담'을 올해 상반기 중 영상화한다. 드라마 '망자의 서'와 '계약우정'도 올해 중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웹툰도 IP 활용에 활발한 모습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

리밍 서비스(OTT) 시장이 확대하면서 웹툰 IP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웹툰에서 검증된 수많은 IP를 기반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네이버 웹툰이 가지는 IP 가치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며 "글로벌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좋은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영상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아시아의 디즈니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영상 기획·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스튜디오N 등을 통해 콘텐츠 IP 기반 비즈니스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OTT 플랫폼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기를 입증한 웹툰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IP의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 참신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한화시스템

협력사 대금 480억 조기지급

한화시스템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109개사 대상 408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조기지급하게 되는 대금은 협력사 별로 상이하지만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순차 지급하게 된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의 동반성장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나눔 경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인덕션 핵심부품 무상보증 최대 '10년 보장'

삼성전자가 인덕션 핵심 부품을 최대 10년간 무상보증해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인덕션 프리미엄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들어 3구 이상 인덕션을 구매하는 고객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코일과 상판이다. 종전까지는 1년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년과 3년까지 보증기간을 확대했다. 만약 고장이 나면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에 접수해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받을 수 있다. 단, 코일과 상판을 제외하고는 1년 무상 보증 기간을 유지한다.

/김재용 기자

코트라

해외안전관리요령 동영상 배포

KOTRA(코트라)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책과 대처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22일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84개국, 129개 도시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중인 코트라는 '안전'을 핵심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안전관리 대상을 직원과 기업고객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번 동영상은 총 6분 분량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예기치 않게 직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주제로 담았다. 테러, 납치, 총기난사, 노상강도 등 평소 대응요령 숙지가 요구되는 범죄를 다뤘다.

특히 코트라 자체 축적자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테러, 납치, 총기난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며 전문성과 정확성도 확보했다.

해외안전관리요령 동영상은 코트라, 국가정보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휘센 에어컨 미리 구매하면 70만원 캐시백"

(최대)

LG 휘센 미리 구매 대축제

업그레이드, 사전방문 등 혜택

LG전자가 휘센 에어컨 신제품을 일찍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0 LG 휘센 미리 구매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LG베스트샵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휘센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캐시백, 제품 업그레이드 등 실속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듀얼 디럭스 이상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선물한다. 대형 평수에 특화된 제품인 27평형 크라운 스페셜 모델에는 최대 70만원까지 캐시백이 부여된다.



LG전자는 휘센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는 고객에 특별 이벤트를 제공한다. /LG전자

제품 업그레이드도 된다. 듀얼 스페셜 이상 투인원 모델을 구매하면 일반 벽걸이 에어컨 대신 공기청정 기능이 적용된 제품으로 바뀐다. 20만원 상당 혜택이다. 듀얼 프리미엄 이상 모델 구매시에는 클린봇을 탑재한 모

델로 바뀐다.

설치 전문가인 미스터 휘센의 사전 방문 서비스도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고객 집구조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설치 방법을 제안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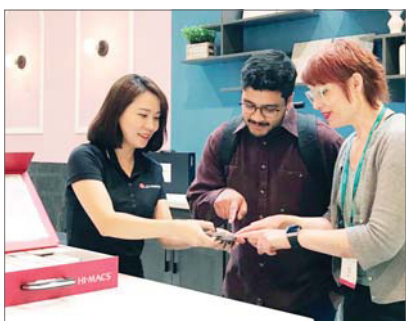
/김재용 기자 juk@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등으로 美 정조준

'KBIS 2020'서 신제품 20종 공개

LG하우시스가 엔지니어드 스톤, 인조대리석 등으로 북미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들 잡기에 나선 가운데 자사의 미국 조지아 공장 엔지니어드 스톤 3호 라인이 올해 1·4분기 중 완공되면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추가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하우시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0'에 참가해 엔지니어드 스톤과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신제품 20종을 공개하고 신규 거



LG하우시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0'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래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하우시스는

/김승호 기자 bada@

한화큐셀

유럽·호주서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

한화큐셀이 유럽·호주 등 해외 등지에서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화큐셀은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본 상은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인 이유피디 리서치(EuPD)가 유럽과 호주 태양광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시장 침투력 등을 기준으로 고객 조사를 실시해 수여한다. 이유피디는 2010년 독일을 시작으로 매년 ▲태양광 모듈 ▲인버터 ▲에너지 저장장치 3개 제품군에 대해 태양광 톱 브랜드를 수여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2012년 한화그룹이 독일 큐셀을 인수한 이래 2014년부터 유럽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유피디가 수상 범위를 호주까지 확대한 2016년부터는 호주에서도 매년 태양광 톱 브랜드를 수상하고 있다. 이처럼 한화큐셀이 유럽과 호주에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효과적인 현지 영업 마케팅 전략이 있다.

한화큐셀은 전 세계 주요 업계 시상식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은 큐피크 듀오 시리즈와 태양광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에너지 태양광 솔루션인 '큐홈'을 유럽과 호주에 공급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2020

올해는 더 좋을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SK하이닉스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비슷한 게임은 가라” 달라진 넷마블의 첫 타이틀 ‘A3’

넷마블 미디어 쇼케이스

3월 출시, 3년간 개발 120명 투입
모바일 MMORPG에 배틀로얄 가미
“향후 웰메이드 게임 만드는데 주력”

넷마블이 ‘양산형 게임’을 지양하고, ‘강한 넷마블’의 포문을 열기 위해 융합 장르 게임으로 차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출시를 앞둔 ‘A3: 스틸얼라이브’가 포문을 연다. 넷마블은 A3: 스틸얼라이브를 통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배틀로얄’ 콘셉트를 가미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넷마블은 22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3월 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A3: 스틸얼라이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넷마블

통해 “A3: 스틸얼라이브는 웰메이드와 장르융합이 특징”이라며 “흔히 MMORPG가 양산형 게임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A3: 스틸얼라이브는 MMORPG에서의 차별화 된 콘텐츠를 배틀로얄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웰메이드와 장르융합’, 투트랙으로 넷마블의 강점인 MMORPG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넷마블은 올해 ‘강한 넷마블, 건강한 넷마블’을 표방하며, 업(業)의 본질인

게임 사업을 강화한다고 표방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세운 경쟁력은 융합장르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는 게임을 스피드하게 만들고 장르 선점을 하는 전략이 있었다면 지금은 웰메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미래는 융합 장르 게임으로 전환될 것이고 넷마블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나온 A3: 스틸얼라이브는 지난 2002년 출시한 넷마블의 자체 지식재산권(IP) PC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을 모바일 MMORPG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모바일로의 이식을 위해 3년의 개발 시간과 12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A3: 스틸얼라이브는 ‘30인 배틀로얄’을 통해 기존 모바일 MMORPG에서 볼 수 없었던 경쟁을 선사한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30인 배틀로얄의 생존 결과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경험치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홍광민 이데아게임즈 개발총괄은 “처음에는 50명을 기준으로 3개월 간 테스트한 결과, 사이즈나 게임 체감, 재미면에서 30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30인 배틀로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A3: 스틸얼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출시표를 던질 예정이다.

넷마블은 지난 13일 글로벌 담당인 이승원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하며, 올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에 대

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선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A3: 스틸얼라이브 글로벌 원빌드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판호(유통허가권)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 시장 진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식 대표는 “넷마블도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수년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어 좋은 소식이 들리면 빠르게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자체 IP를 가지고 글로벌 빅마켓에 도전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PC나 콘솔 게임 등 플랫폼 융합에 대해서는 기술적 장벽은 없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당분간은 주 플랫폼인 모바일 시장 안착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넷마블은 게임의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이날부터 A3: 스틸얼라이브의 사전등록과 함께 TV 광고를 시작하고, 오는 3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월 기본료 1만원에 데이터 15GB 쓰세요”

LG헬로비전

오프라인 매장·다이렉트몰 상품 판매
요금제 49종 구성… 특화 라인업 마련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LG유플러스망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다이렉트몰을 통해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KT, SK텔레콤망에 이어 LG유플러스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LG유플러스망 요금제는 총 49종으로 구성됐다. 라인업은 ▲데이터 걱정 없는 LTE형(대용량·속도제어) 8종 ▲스튜디오리얼링(The 착한 데이터·CU) 15종 ▲LTE 중저가형(슬림·보편) 20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요금제, 패드 전용 요금제 등 특화 라인업도 마련됐

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2030 이용자를 겨냥한 ‘데이터 걱정 없는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걱정 없는 유심 일5GB’를 통해 월 150기가바이트(GB)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를 월 3만 98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한 ‘슬림·보편 요금제’도 신설됐다. ‘슬림 요금제’는 소량의 제공량을 월 1만원 미만(유심요금제 기준)의 초저가 기본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월 1만~2만원대(유심요금제 기준) 기본료에 데이터를 15GB까지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태평양물산 본사에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섬유·의류업체 친환경 제품개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생 태광산업·대한화섬 공동대표(왼쪽 세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태광산업

태광산업-대한화섬, ‘에이스포라 에코’ 주목

“친환경 섬유 사용확대… 제품 차별화 주력”

태광산업이 대한화섬과 함께 친환경 섬유 ‘에이스포라 에코’에 주력하고 나섰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글로벌 SPA 브랜드와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친환경 섬유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친환경 섬유 ‘ACEPOR

A-ECO(에이스포라 에코)’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차별화하는 한편 마케팅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에이스포라 에코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리사이클 나일론 섬유가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100km 6초면 충분… 정숙함에 담긴 야성



자동차 시승기

벤츠 ‘더 뉴 GLC’

M264엔진에 ‘9G 트로닉’ 조합
4기통 터보엔진 최고출력 258마력

슈퍼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제네시스 등 신형 럭셔리 브랜드도 신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4년 연속 수입차 시장 1위를 이어갔음에도 위기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벤츠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신차 15종 출시와 서비스 센터 확충 등 기본에 충실한 계획을 소개했다.

‘더 뉴 GLC’ 출시가 그 첫걸음이다. SUV 라인업 중 미드 사이즈를 담당하는 모델로, 2016년에 처음 내놨던 모델을 부분변경했다. 우선 GLC 300 4매틱과 쿠페를 내놓고, 추후 AMG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더 뉴 GLC 300 4매틱을 타고 약 100km를 달려봤다. 서울 청담에서 춘천까지 시내와 고속도로를 아우르는 코스다. 일반 트림이라 반자율주행은 사용하지 못했다.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벤츠 패밀리룩을 기반으로 한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다. 고성능 LE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된다는 것만 눈에 띄는 변화다.

문을 열고 나서야 ‘더 뉴’의 의미를 알게된다. 더 뉴 GLC 300은 전기차인 EQS에 이어 2번째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를 장착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보다 2배 가까이 커졌고, 인터페이스도 더욱 직관적으



더 뉴 GLC.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C 실내.

/김재용 기자

로 변했다. CD 투입구 대신 공조 시스템 버튼을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휴대폰 무선충전 공간은 벤츠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 상당수가 무선충전 공간을 애매한 위치·크기로 만들어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지만, 더 뉴 GLC는 안쪽으로 밀어넣게 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편의성도 높였다. 갤럭시 노트9이 넉넉히 들어갈만한 크기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세련된 푸른색을 내준다. 디지털 계기반은 3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 크고 또렷한 아이콘을 사용해 남녀노소 직관

적으로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다.

출발도 간편하다. 시동을 켜면 전 기차와 비교할만큼 정숙함을 지키면서도, 브레이크를 떼면 아주 잠깐의 무게감을 주고는 쭉쭉 뻗어나간다. 공차중량이 1800kg대로 가벼운 편인데다가 파워트레인도 강력해서다.

더 뉴 GLC 300은 M264 엔진에 9단 변속기인 ‘9G 트로닉’을 조합했다. 벤츠의 최신 기술들을 모두 담은 셈이다. 2.1짜리 직렬 4기통 터보차저 엔진이 최고출력 258마력에 최대토크 37.7kg·m을 내준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내는데까지 6초대면 충분하다.

서스펜션은 이전과 같은 제품을 썼음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해준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세팅값을 변경하고 시트질도 높은 결과로 보인다.

딱 하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USB 포트다. 기존에 있던 슬롯 대신 마이크로5핀 규격만을 지원한다. 새로운 MBUX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딱히 성능을 높이는 조치는 아닌만큼, 1개 정도는 기존에 사용하던 규격을 장착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김재용 기자 juk@

2만가구 분양, 해외 석화사업 날개... '1조 클럽' 무난

(영업이익)

건설, 飛上 2020 전략

대림산업

수술장갑 전문 美 사업부 인수로
고부가 석유화학사업 글로벌 확장
방배6구역 재개발단지 1131가구 등
올 14개 단지서 2만357가구 공급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이 탄탄한 분양실적과 해외 석유화학사업 호조 영향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입성할 전망이다. 올해 주택공급은 14개 단지, 2만357가구를 계획 중이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2165가구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대림산업의 매출액은 2조7100억원, 영업이익은 29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9조6630억원, 영업이익 1조6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사우디 마덴암모니아 프로젝트 공정 본격화로 본사 플랜트 및 해외법인 매출 증가 효과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영업이익 '1조클럽' 가입 전망

대림산업은 지난해 사상 첫 1조 클럽 가입에 이어 올해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0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1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려개발이 연결대상 종속 기업으로 편입,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개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 PF 사업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고려개발은 부실사업 정리 및 구조조정 등 노력으로 2016년 영업이익



대림산업 사옥 전경. /대림산업

을 흑자로 전환,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이뤘다. 지난해 11월에는 8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하면서 대림산업 연결기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고려개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5540억원, 400억원이다.

또한 북미 화학부문 사업 투자 확대도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 일환으로 수술용 장갑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수지와 라텍스 등을 생산하는 미국 크레이튼사의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인수 예정금액은 6182억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작 공장 및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2분기부터는 실적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어 태국 PTTGC와 합작해 미국 에탄크래커 석유화학 공장 개발도 검토 중이다. 투자규모는 총 8조원에 이르며 2026~2027년 완공 예정이다.

◆주택공급 2만357가구, 5~6월 집중

주택공급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14개 단지, 2만35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2165가구다. 올해 마수걸이 분양 단지는 '밀양내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는 오는 3월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총 560가구를 공급한다.

5~6월에는 대부분의 분양 일정이 몰려있다. 이 시기 분양 예정된 단지는 총 10개다. 이는 올해 대림산업 전체 분양 물량의 71.42%를 차지한다.

5월에 분양하는 단지는 총 5개다. '인

천 청천 2구역', '대구 학정 도시개발사업', '경기 광주 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진주 주악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남 순천 공동주택 신축공사(2차)'가 이 시기 분양 일정을 잡는 중이다.

6월도 5개의 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부산 가야역 주상복합 신축', '안양 덕현 재개발', '화성 남양 B11 공동주택', '김포 마송 2차', '충남 서산 석림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분양 예정이다.

하반기인 8~11월에는 3개의 단지가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8월에 '인천 영종 3차', 10월 '거제 2구역', 11월에 '아크로파크 브릿지'가 분양을 앞뒀다.

특히 방배 6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크로파크 브릿지는 총 1131가구를 공급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676가구다.

대림산업은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약 2만4000여 세대 분양에 나섰다. 2018년 1만5000세대 대비 59% 늘어난 수준이다. 자회사인 삼호와 고려개발도 1만 세대 규모의 분양을 기록했다. 자체사업장인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계약고 3282억 원)도 주택사업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설 이후 분양 큰 장... 2~4월 8만가구 푼다

지난해 동기 보다 2배 많은 물량
분양가상한제 유예종료 전 공급

설 이후 아파트 분양 큰 장이 열릴 전망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4월까지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8만1592가구로, 2019년 같은 기간(4만7739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2, 3월 분양물량이 크게 늘었다. 청약업무 이관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된 데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영향으로 보인다.

시도별 분양물량은 ▲경기 2만1554가구 ▲서울 1만7797가구 ▲인천 8937가구 ▲대구 7160가구 ▲경남 5332가구 순으로 많다. 2~4월 분양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8288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산, 화성, 양주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과천시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도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최근 청약 호조세를 보이는 부평구에서는 '부평부개서초교복재개발(총 1559가구)', '힐스테

이트부평(총 1409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청약 열기가 고조됐던 송도에서도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총 1205가구)', '레이크송도3차(총 11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의 분양물량은 3만3304가구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부산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 재개발·재건축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체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 '광주유동재개발(총 2240가구)', 부산 사상구 '부산덕포1구역중흥S클래스(총 1572가구)' 등이 3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모니터에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과 관련해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우한 폐렴'에 주가 희비 제약 ↑ 中 소비업종 ↓

마스크 판매 기대... 동국제약 수혜
여행 등 중내수서비스 업종 하락세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 증시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에 제동이 걸렸고, 중국 증시 역시 하락세다. 국내 증시는 수혜주와 타격주의 성과가 상이하다.

22일 동국제약은 전일 대비 6.36% 오른 9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동국제약은 우한 폐렴에 따라 마스크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가 몰리면서 이른바 우한 폐렴 수혜주로 꼽힌다.

아울러 백신 개발 업체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소독제로 쓰이는 차염산 소다를 생산하는 백광산업(4.49%), 슈퍼항생제 개발사인 인트론 바이오(2.28%) 등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여행, 화장품 등 중국 내수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해당기간 수익률은 각각 -9.2%, -8.3%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안전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중국 여행 수요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내 증권사는 잇따라 '우한 폐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코멘트가 담긴 투자 보고서를 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폐렴 확산 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은 지난 사스때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연구원은 "중국 춘절 전후 폐렴 전염 속도를 확인하기 전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사태를 관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우려로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2.06포인트(0.52%) 하락한 2만9196.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가 하락한 것은 최근 6거래일 만에 처음이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LH, 보호종료아동에 매입임대 우선 공급

아동주거권 보장 등 정책 적극 이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연중 수시모집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

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최소 6년이 보장되고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정연우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 1차 경쟁률 4.94대 1 기록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87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쟁률은 4.94대 1이다.

지원자의 62.6%가 남성이며, 여성이 37.4%를 차지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다. 20대 후반이 46.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39.6%)과 30대 전반(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중인 지원자가 62.2%며, 상경계열 전공자가 77.6%를 차지했다. /안상미 기자

표준단독 공시가 4.4% ↑ 전년 절반... 마용성은 '악!'

최근 10년 간 평균변동률과 유사 서울 6.82%... 광주>대구 順 상승 동작구, 10.61%로 가장 많이 올라 '중부세 대상' 9억 초과 주택 타깃 서울에만 2896채... 13.4% 증가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은 부동의 1위인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지난해(9.13%)의 절반 수준으

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시세)은 53.6%

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이면서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은 3.32%, 6억

~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2019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553채)에 비하면 13.4% 증가한 것이다. 앞서 작년에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

(3012채)은 지난해(1911채)에 비해 57.6%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었다.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국토부는 앞선 소수자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154건으로 지난해 보다 27.8%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를 하며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주인 바뀐 아시아나, 에어부산과 동반이륙?

아시아나 자회사 에어부산 등 3곳 공정거래법 지분 문제 놓고 잡음 HDC현산, 상호명 가등기 신청 지분 문제 한 번에 해소 움직임



에어부산의 항공기. /에어부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부산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 등 자회사들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중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에어부산 등 3곳이 인수 과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항공업인 에어부산의 거취를 놓고 매각설도 불거지며 일부 잡음이 새어나오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에어부산·아시아나IDT·에어서울·아시아나개발·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총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는 각각 44%, 76%,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증손회사가 인정되려면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증손회사인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에 대한 지분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같은 항공업인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매각설까지 흘러나온

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에어부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각도 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으로 2조원과 함께, 지난 10일에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하며 재무적 부담이 상당히 자회사의 지분을 더 사들이는 것은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면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상호명 변경을 위한 가등기(임시등기)를 신청하며 자회사를 모두 안고 가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HDC현대산업개발'이라는 자사 상호명을 'HDC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했다. 이는 상호 변경에 앞서 해당 이름을 선점하기 위한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한번에 해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에어부산 매각설의 진위여부에 대해 묻자 "이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에어부산 내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에 최종 인수되기 앞서 본격적인 경쟁력 제고 및 가치 높이기에 나선 모습이 엿보인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에 취항하며 현재 선전·청두·닝보·세부·가오슝 등 5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또한 오는 2월과 4월에는 신기재 'A321neo LR'도 2대 도입해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노선이 전체적으로 80% 중반의 탑승률이 나오고 있다. 신기재 NEO LR과 NEO 항공기의 도입은 2월 말과 4월로 예정돼 있다"며 "아직 노선은 결정된 바 없지만 아무래도 중거리가 가능한 항공기가 도입된다 보니 싱가포르 등 노선을 연내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재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은 올 10월 정도로 예상돼 아마 신규 노선도 그때부터 검토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kim2935@

허위계약에 해외여행비 갑질 구멍난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금감원, 위반 법인보험대리점 적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사형 GA 등 기형적인 조직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GA는 내부통제가 취약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GA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 GA의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사형 GA의 내부통제체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 대부분이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개별 지사는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본사의 준법감시가 유명무실했다. GA 본사는 실질적인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와 자금관리를 취약했다. 지사형 GA의 회계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본사의 검증절차 부재로 자금의 임의집행, 횡령 가능성이 높았다. 또 GA의 인사·조직 권한이 각 지사의 대표에 위임돼 있어 지사별로 수수

료 체계가 상이하고 수수료 편취사과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허위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 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 행위 등도 드러났다. 실제로 한 GA 임원은 수 십 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 수수료는 임의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GA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으로 보험계약을 모집,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과 과장 광고 등을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G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GA가 확대된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 십 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광고심의필:2020-1516-001601]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유커 잡아라” 항공 연계 여행인프라 구축 ‘시너지 기대’

호텔 품은 항공사, 이륙준비중

〈下〉 제주항공

호텔·항공 기본 매커니즘 유사
인터컨티넨탈호텔 브랜드 도입
지난해 3분기 1.8억 흑자 전환

제주항공이 후발 주자로 호텔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정이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주항공의 항공업과 호텔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안착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주축 사업인 항공업조차 수익이 악화되며 호텔 운영을 통한 가시적인 수익 창출이 더 절실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숙박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업을 겸하고 있는 항공사 가운데 가장 최근 호텔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은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 12월 퍼시픽 제3호전문사모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브랜드를 도입해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라는 이름으로 호텔업을 시작했다.

이제 막 발을 댄 제주항공의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은 미미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호텔 부문 매출은 2018년 26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71억7800만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영업이익은 2018년 -15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1억82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체 영업이익 중 1.51%로 아직 호텔업과의 ‘시너지’를 냈다고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시에 인바운드 승객들, 특히 중국인 승객 대상으로 준비됐었던 게 호텔사업이다. 준비 당시 특히 중국 기점으로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여행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진행했던 사업이다”며 “지금 투숙객의 50% 정도는 중국인이다.

오픈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1년만에 사실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호텔업계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일로 꼽히는 수준이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제주항공도 다른 항공사들처럼 홀리데이인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외국 관광

객들이 입국했을 때 이들을 호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호텔 사업 진출은 일단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그런 노후가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 호텔, 항공, 금융 등인데 특히 호텔과 항공은 ‘객실’을 관리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호텔도 객실이라 부르고 항공사도 기내를 객실이라고 부른다. 기본 매커니즘은 거의 같기 때문에 두 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제주항공 여객기 모습.

/제주항공

‘창립 15주년’ 제주항공, 3대 도전과제 발표 “기준·마인드 높여 성공 DNA 올린다”

비정상 상황 대처·안전교육 강화

제주항공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올해 3대 과제를 선포했다.

제주항공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변화된 항공산업 환경에서 LCC산업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3대 도전 과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첫째, 안전운항체계는 승객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정도를 목표로 기준을 높인다. 둘째, 최고 경영자가 CCO로서 직접 고객서비스를 관리하는 등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높인다. 셋째, 제주항공이 15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핵심가치 ▲안전 ▲저비용 ▲도전 ▲신뢰 ▲팀워크를 재조명해 제주항공의 성공 DNA를 날카롭게 버린다.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스카이홀에서 열린 15주년 기념식에서 이석주 사장은 2020년도 사업전략의 3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제주항공은 고품질·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스카이홀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이석주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항공

지연 등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직무별 안전교육을 강화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제주항공 대표이사의 직책을 ‘CCO’로 정의하고 국가공인제도 CCM인증 절차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학령인구 역전에 근심 가득한 대학 “대학정원비 학생 1.6만명 이상 부족”

〈고3+재수생〉

종로학원하늘교육 자료분석
특성화고 취업률 감안 50% 반영
수도권 제외한 지역 미달사태 우려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3학년생보다 많아지는 학령인구 역전 현상이 올해 본격화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올해 고3과 재수생까지 합쳐도 대학 정원보다 1만6000명 부족하다는 예상이 나왔다.

2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와 각 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진학 희망자 수는 고3 재학생이 40만3000여명, 재수생은 13만명으로 약 53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입 희망자 추정치는 일반고와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 재학생 전원이 포함됐고,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50%대임을 감안해 50%로,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85%대임을 고려해 15%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관련 통계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고령화 추세는 더욱더 빨라졌다.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대입 희망자로 추정했다.

반면,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4년제 대학 34만7500명, 전문대 20만3159명을 합해 55만659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대입 희망자가 적어도 1만6000

여 명 이상 미달할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재학생 감소폭이 크고, 재수생도 소폭 감소한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4만5479명으로 전년(50만1616명)과 비교해 5만6137명 감소했다. 재수생은 전년 수능(2020) 지원자수 기준으로 14만2271명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1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학생 모집 미달 사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는 수도권 지역에 고교생 절반(약48%)이 있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도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 광역시 통학권까지 고려하면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지방 소재 대학들의 정원 미달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

삼성리서치, ‘세계 0.1%’ IEEE 펠로우 배출

〈전기전자공학회〉

삼성리서치가 또 한 번 세계 최고 기술자를 배출해냈다.

삼성전자는 22일 뉴스를 통해 삼성리서치 몬트리올 인공지능 센터 스티브 리우 박사(사진)가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펠로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IEEE 펠로우는 학회 회원 중 최상위 0.1%에만 부여하는 최고 기술자 등급이다. 통신과 반도체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 탁월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사회



발전한 인물을 매년 선정한다. 리우 박사는 몬트리올 AI센터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며,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데이터센터 전원 관리와 네트워크 서버 응답 제어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등 업적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SK가스, 카카오와 ‘모빌리티 사업’ 공동 추진

SK가스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SK가스는 지난 21일 성남 판교 SK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SK가스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네트워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결합

한 통합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SK가스는 LPG 충전소를 단순 연료 충전 공간이 아닌 휴식과 정비까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카카오T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LPG 충전소에 대한 가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됐다. /김수지 기자



지난 21일 성남 판교 SK사옥에서 열린 미래 모빌리티사업 협력 MOU 체결식에서 윤병석 SK가스 사장(왼쪽)과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가스

체중·이용시간 기록... 반려묘 건강 챙겨줄 'IoT 화장실'

도전! 스타트업UP

고양이 화장실 '라비봇' 만든 노태구 골골송작곡가 대표

1세대 전면수정 2세대 3월 출시 내부공간 30% 확대, 편의 높여 모래 5L정량 맞춰 보충문제 해결



골골송작곡가의 고양이 자동화장실 라비봇 2세대. /골골송작곡가

노태구 골골송작곡가 대표에게 2020년은 중요한 한 해다. 오는 3월, 1년 6개월만에 두 번째 고양이 자동화장실 제품인 '라비봇' 2세대를 출시하기 때문이다. 라비봇 2는 지난 2018년 와디즈 펀딩으로 판매했던 라비봇 1세대의 문제를 전면 수정해 내놓은 제품이다. 노태구 대표는 "외관 빼고는 안에 있는 센서 하나하나까지 전부 바꿨다"고 설명했다.

라비봇은 IoT 기술로 고양이 배설물을 청소하는 자동화장실이다. 화장실 내부에 IoT 센서를 장착해 앱으로 화장실 내부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묘의 화장실 이용 횟수·시간·체중 등 데이터도 기록된다. 이 배변 활동 데이터는 반려묘의 건강 상태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동물 병원 진료 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라비봇 2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 크기다. 1세대와 외관은 같지만, 내부 공간을 30% 넓혔다. 이를 통해 좁은 내부에서 불편하게 볼일을 보던 반려묘의 편의를 높였다. 문제가 가장 많았던 고양이 화장실 모래 보충 문제도 해결했다. 화장실 내부에서 모래를 교환하는 구조도 바꿔 모래 과다 보충이나 과소 보충을 막았다. 예전에는 분리기를 밀어서 모래통에 있는 문을 열면서 모래

를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2세대는 내부가 돌아가면서 구조를 변화해 모래를 교환하기 때문에 5L 정량을 맞출 수 있다. 한마리 기준으로 최대 21일간 사용할 수 있다. 21일 후에는 모래 전체 같이만 해 주면 된다. 각기 다른 모래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라비봇 전용 모래도 구비했다. 라비봇 전용 모래는 내부에 늘어붙지 않아 날림도 적다.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냄새를 감소하는 젤 형태의 탈취제도 장착했다.

자동화장실 부품과 제조사도 바꿨다. 와디즈 펀딩 직후 손을 잡게 된 테크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의 조언으로 1차 벤더를 소개받아 OEM 위탁 생산하게 됐다. 라비봇 1세대까지는 자체적으로 부품을 구매해 조립했다. 노태구 대표는 "당시 중국제 부품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 전부 국산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삼성전자의 C랩 아웃 사이더로 선정되면서 삼성전자의 조언을 얻어 품질 기준도 대기업 수준으로 맞췄다. 라비봇과 연동 문제가 있던 앱도 개선했다. 노태구의 목표는 불량률 0%다.

노태구 대표는 라비봇 2세대 개선점

은 모두 고객의 피드백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1세대 펀딩 판매 후 우후죽순 발생했던 불량품을 수리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고객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1세대 구매 고객의 집을 방문해 AS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 노태구는 "라비봇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라비봇이 고양이 집사(반려묘 주인)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볼 수 있어 큰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노태구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준 고객들을 위해 보상판매도 진행할 계획이다.

라비봇 2세대는 이미 수출도 예정돼 있다. 북미에서 펀딩을 진행했다. 노태구 대표는 "콤팩트한 외관에 내부를 키워서 특히 미주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한 라비봇 2세대 수출은 오는 4월 말 배송이 시작되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6월쯤 고객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 노태구는 "3분기 넘게 기다려야 함에도 펀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노태구 대표의 목표는 고

양이 건강을 관리하는 다양한 IoT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반려묘의 건강 이상 신호를 빨리 발견해 급사를 막기 위해서다. 다음에 출시될 제품은 고양이 활동량이나 건강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목걸이와 같은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과거 노태구가 키우던 고양이가 복막염으로 2주 만에 사망했던 아픈 경험을 다른 집사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노태구 골골송작곡가 대표. /골골송작곡가

반도체 등 '빅3' 中 250곳 집중육성

정부, 한국당 최대 130억원 지원 SoC·의약·V2X 등 총 11개 분야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집중 육성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12억원의 사업화 또는 연구개발(R&D) 자금을 포함해 1곳당 최대 100억원의 정책자금과 최대 30억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 선정 접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하는 분야는 ▲SoC·아날로그반도체·스마트센서·패키징·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의료

기기·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V2X·친환경차 배터리 등 총 11개 분야다.

다만 디지털헬스케어(SW), e-모빌리티빅데이터,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다변화와 업종전환 분야는 추후 경영 등 별도 평가를 거쳐 뽑을 계획이다.

기업선정을 위한 1차 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정부지원 실적, 지원 분야와의 부합성 등 적격성을 심사한다.

2배수를 추리는 2차 평가는 핵심기술 역량의 우수성, 혁신 기술개발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및 기술확보 계획 등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심사한다.

특히, 2차 평가에선 사용자 관점에서 최적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평가를 내실화하고, 객관

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도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혁신성을 심사하는 3차 평가는 성장성, 비즈니스모델, 보유기술과 확보 가능 기술의 파급효과와 성공 시 사회공헌계획을 심사한다.

사회공헌계획 평가는 정부 지원에 따른 성공의 기준과 내용을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고, 목표한 성공이 달성될 경우 기업의 사회 환류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e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고와 관련한 설명회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처협회 김진형 상근부회장(오른쪽)이 한화생명 임성민 미래전략실장과 양측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協-한화생명, 벤처 활성화 협약

벤처기업협회는 한화생명과 '드림파크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생명 드림파크는 기존 한화생명 연수원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벤처협회와 한

화생명은 우수인력 육성 및 벤처 생태계 정책개발 등을 목표로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화생명은 벤처기업협회가 교육·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드림파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벤처협회 회원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카페24 회원, 무신사서 상품판매 하세요"

G마켓·아마존 등 판매경로 연동

카페24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 손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자사마켓 통합관리 서비스에 무신사 연동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신사는 550만 회원 수 보유한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스토어다. 디스이즈네버댓·비온드클로젯·오아이오아이 등 35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주요 소비층은 10대~20대다. 지난해 거래액은 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카페24마켓통합관리'는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자사 쇼핑몰과 국내·외 오픈마켓을 연동하는 서비스다. 운영 중인 각 마켓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 없이 카페24 솔루션에서 상품 등록부터 주문 수집, 배송 관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카페24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연동으로 카페24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보다 많은 국내·외 외부 마켓에 물건을 동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카페24는 무신사를 비롯해 G마켓·옥션·11번가·아마존·라쿤 등 국내·외 29곳의 판매경로 연동을 지원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취약계층에 설 물품 전달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설을 맞아 나눔을 실천했다.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개성공단 기업인 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지난 21일 경기도청 평화부지사실에서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인들이 이웃사랑을 통해 사랑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부한 물품은 의류, 신발, 식품, 생활용품 등 기존 개성공단내 12개 기업이 제조한 것으로 약 4000만 원 어치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깨끗한나라-GS리테일, 상품개발 맞손

깨끗한나라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최신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 개발에 나선다.

깨끗한나라는 GS리테일과 '차별화 상품 개발을 위한 상호 전략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깨끗한나라는 GS리테일의 GS25, GS THE FRESH, 탈라블라 등 전국 1만4000여 개 오프라인 점포 및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카테고리 별 상품 트렌드 공동연구 ▲카테고리 별 트렌드 반영 상품의 신속한 출시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 ▲매장 내 진열 공간 확대 ▲공동마케팅 및 나눔상품 개발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깨끗한나라 최현수 대표이사(오른쪽)가 GS리테일 김중수 MD 본부 본부장과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깨끗한나라

이를 위해 깨끗한나라와 GS리테일은 별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미팅을 갖고 신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청해부대 파병 카드 꺼낸 文... 한미동맹·방위비 다중포석

이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결단 분담금, 한자릿수 증가율 조율 중 부대 작전지역 확대 통한 지원결정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향상을 위해 '청해부대(대한민국 해군 파병 부대)'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독자파병' 카드를 선택하자 한미동맹 및 방위비 분담을 고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중포석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아텐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각각 밝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는 게 아닌 독자파병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결단이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아라비아 만을 잇는 주요 원유 수송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은 이 해협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지역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현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을 강조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이러한 선택은 다가올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기다. 그래서 선거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자파병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꺼냈다. 그중 문 대통령이 미국 정부 요청에 부응해 '독자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가. 복수의 정부 및 여러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독자파병 카드는 원활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향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른 파병인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구매조달' 제품에 우리 군인 맡기나



문명철 기자
국방 칼럼

최근 한 언론에서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 해군에 납품된 방편고글(보호 안경)이 기준강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깨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까지 최근 특전사 보급품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 최강 특전사의 보급품이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뛰어 들 수 있는 '구매 조달'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전문 국내기업이 있음에도 울타리 제조사가 방편고글, 1인 디자인 회사는 방탄헬멧, 통신가설회사는 방탄복, 피부미용업체는 특수전갑을 각각 특전사에 납품했다.

그럼에도 군 수뇌부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법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며, 무결점임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대신, 국민을 위해 당장이라도 죽음의 골짜기에 뛰어 들 군인들은 가짜를 들고 가야한다.

구매 조달로 특전사에 납품된 제품들은 정품이나 더 좋은 성능과 신

뢰도 등이 중요하게 아니다. 특정업체가 독점하면 안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할 각기로 군에 싸게 넣어주면 그만이다. 올림픽의 슬로건처럼 '더 많이 아부나', '더 싸게 후려쳐', '더 빨리 납기를'이 군납품 경쟁올림픽의 숨은 메세지다.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인을 우대한다는 군납사업(전력지원물자)이라지만, 제조를 통한 품질향상이나 최적의 유통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계약법'과 '관련 절차'만 연구하면 된다.

실제로 한 강소기업 관계자는 "제품 연구보다 법령이랑 절차연구하는 쪽이 군납이 된다. 민수시장이나 전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한 걸까. '쉽게 풀어서 군납', '성공하는 군납'과 같은 제목의 책들이 서점가에서 팔린다고 한다. 심지어 공직자인 한 저자는 "군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기도 했다.

/captinm

대학 졸업때까지 주는 장학금 나온다

교육부-기재부 복권위-장학재단 협약 올 2500명 선발... 보전성 기금 3500억 저소득층 중고생에 매달 25~45만원

정부가 복권기금으로 중·고생부터 대학단계까지 주는 장학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한국장학재단과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 협약에는 기획재정부 복권

위원회가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원금 보전성 기금 3500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출연금은 올해부터 2022년~2023년까지 4년간 연간 875억 원씩 투입되고, 출연금 이자 수익과 추가 사업비가 장학금으로 쓰인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기존 장학사업과 달리,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고생(고2~고3) 중 선발해 중·고생부터 대학 단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장학제

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1500명이 선발됐고, 올해는 1000명 추가돼 올해 250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중학생 때는 월 25만원, 고등학생 때 월 35만원, 대학생 때 월 45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학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아울러 1대1 멘토링과 진로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한용수 기자



아주자동차대 뉴질랜드 현지 졸업식

/아주자동차대

아주자동차대 뉴질랜드 취업자, 현지서 졸업식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 이수

아주자동차대가 뉴질랜드 현지 취업자가 이어짐에 따라 3년째 현지에서 졸업식을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2일 아주자동차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락훈 국제교류센터장 일행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해 현지 자동차 정비 분야와 요트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에는 뉴질랜드에서 해외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현지 회사에 취업한 졸업생 이한준, 김상현 씨와 대학을 졸업하고 뉴질랜드에 취업해 영주권 취득을 앞둔 선배 3명도 함께 참

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아주자동차대 뉴질랜드 동문회도 함께 열렸다.

자동차디자인전공 졸업생 이한준 씨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해외 취업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지도교수님 권유로 1학년 겨울방학에 뉴질랜드 현장실습을 경험해본 덕분에 해외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생겨 2학년 여름방학부터 뉴질랜드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취업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요트제작 분야 전문 기술인이 되어 뉴질랜드와 한국을 오가며 요트제작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동부 연합기숙사 건립

한국체육대학교에 인근 사립대 학생들도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가 건립된다.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서울 동부권 대학 재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 부지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키로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 2021년 착공, 2022년 완공, 2023년 3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

인천재능대학교는 21일 2019학년도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2008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감수하는 대신,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것이다.

/한용수 기자

"모의선거 교육 추진... 학내 선거과열 제한해야"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실시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40개 초·중·고에서 시행을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지 논란에 휩싸였다.

모의선거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참정권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선거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만18세가 되는 고3 일부가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모의선거 교육이 합법한지가 쟁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포함된 모의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의선거 교육은 유권자가 아닌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가능해 선관위 최종 결론에 따라 학생 유권자를 제외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유권자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등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화진포 개별 등기 분양!

서울에서 2시간 40분 거리



- 1년 365일 사용 가능
- 오션뷰 선착순 10명
- 법인 사원 휴양소 이용
- 개별 등기 가능

24시간 상담
02) 541-0113

제주 별장 개별 등기 분양



- 1억 천만원
- 선착순 5명

블라벤고원 투어 (1,300m)

라오스 남부휴양지 팍세 5일 129만원


대한항공 전세기, 2020년 2/1, 4일 출발



포함: 왕복 항공,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필리핀 바기오 파인우드 9일 149만원

해발 1,500m고원 휴양도시, 평균기온 13-23℃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마닐라따가이파이 5일 10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중국 광저우 3박 4일 10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1일 골프 특가

태국	차츄사오	썬라이즈 CC 스카이벨리 CC 카오차눅 CC 롭부리 CC	80,000원 70,000원 85,000원 75,000원
필리핀	클락	파인우드 CC	100,000원
		베버리힐스 CC	100,000원
	세부	뉴아시아 CC	100,000원
		메르세데스 CC	70,000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엔팅아와나 CC	130,000원
		오나 CC	95,000원
	하바드 CC	킨나라 CC	100,000원
		몬테레즈 CC	90,000원

말레이시아 겐팅아와나 7일 149만원

해발 1,100m 사계절 시원한 고지대




7박 9일 16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브루나이 이스트우드 9일 169만원

아시아 100대 코스,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마카오 골프 3박 4일 109만원

비자비 면제 / 간소한 비자 / 5성급 호텔



포함: 왕복 항공, 여행자보험, 미팅/샌딩, 호텔(2인1실), 조식, 석식, 그린피, 18홀(카트, 캐디, 라커)

치앙라이 7박 9일 19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치앙마이 5일 119만원 / 파타야 5일 11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방콕 명문 5일 13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오키나와 골프 4일 149만원 / 미야자키 4일 10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사이판 3박 4일 129만원~

포함: 왕복항공, 숙박(2인1실), 미팅/샌딩, 식사, 면비비자(사전비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괌 3박 4일 12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하노이 하롱베이 5일 11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나트랑 3박 5일 12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호치민 3박 5일 13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달랏 3박 5일 15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일 129만원

자카르타 시내 15분 거리, 로얄 자카르타CC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말레이시아 글렌메리 5일 139만원

최고급 골프장과 5성급 호텔 숙박

대만 가오슝 3색 골프 4일 13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하이난 럭셔리 골프 5일 109만원

포함: 왕복항공, 숙박(2인1실), 미팅/샌딩, 식사, 면비비자(사전비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말레이시아 9일 145만원 (몬테레즈CC)

왕복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ILtour 골프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 **02-541-424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빌딩 717호 | 카카오톡 상담 가능: @golfcondo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 E-mail: golfcondo@naver.com

사우나, 가정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송용 국내 출시



전원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SALE


5-6인용
2인용 275만원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용인 전원 택지 반값!



- ☑ 선착순 3명 3.3㎡ 94만원
- ☑ 상하수도공사, 토목공사완비
- ☑ 즉시건축가능
- ☑ 정남향 16세대 단지, 계획관리지역
- ☑ 강남 1시간, 덕평 IC 7km

24시간 상담 031-282-8851

용인 기흥 타운 하우스

- 30평형 3억 8천 5백만원
- 즉시 입주 가능!




- ☐ 고급 타운하우스
- ☐ 기흥 IC 5분
- ☐ 삼성반도체 5분
- ☐ 롯데 명품 아울렛 5분
- ☐ 이케아 매장 오픈
- ☐ 서울 강남 40분 거리
- ☐ 골드/코리아 CC 입구

선착순 5명

로렌스빌 타운하우스 24시간 상담 **031-282-8851**



대·중기협력재단-LS산전,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LS산전과 지난 21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산전은 상생협력기금 30억원을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왼쪽)이 LS산전 김동현 CFO(최고재무책임자)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주금공, 설 맞아 장애인 복지관서 떡국 나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시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2020년 설맞이 福(복)나눔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정한 사장(가운데)과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봉사단은 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이용자 700명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떡을 선물했다. /주택금융공사



롯데홈쇼핑, 설날 맞이 명절음식 나눔봉사
 롯데홈쇼핑은 지난 21일 설날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설날 맞이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홈쇼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롯데봉사단' 20여 명과 영등포지역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영등포 희망수라간 서포터즈'가 참여했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실종아동 찾기 '그린리본 캠페인' 협약
 롯데칠성이 지난 21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칠성 본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그린리본 캠페인' 협약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은 영업망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롯데칠성음료 정찬우 HR부부장(왼쪽)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상영 실종아동전문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



신세계푸드, 설 맞이 명절음식 나눔 행사
 신세계푸드가 설을 맞아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에 명절용 가정간편식을 전하는 나눔행사를 펼쳤다.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세계푸드 임직원들은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66곳에 떡국떡, 곰탕, 소불고기, 만두류 등 명절음식으로 구성된 가정간편식을 전달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16곳의 가정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도시락까지 더해 배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신세계푸드

GDP 2% 성장의 의미



윤 위 중 역
 잠시 심포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 성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과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판론이 우세하다. 민간 경제가 주도한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성장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며 정부의 결정적 역할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3분기보다 좋아졌으니 경기가 바닥은 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내놓는다. 특히 연 2% 성장에 대해선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들여볼 필요

가 있다. 지난해 4분기의 1.2% 성장이 정부주도의 재정집행에 기인했다는 점은 결코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6.8% 성장 이후 줄곧 2~3%의 성장을 기록해왔다. 게다가 2017년 3.2%였던 GDP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2.0%로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의 0.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경기는 워낙 좋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지난해 9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9%로 하향조정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GDP도 2.7%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OECD는 우리나라의 2019년 GDP가 2% 초반이란 걸 예측한 셈이다.

게다가 좀 더 들여다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한국은행의 발표처럼 2%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집행이 없었다면 4분기 1.2% 성장은 힘들었고, 2019년 전체 성장률 2%도 불가능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6.5% 크게 늘어 GDP 성장을 끌어올렸다. 반면 민간소비는 2014년(2.0%)이래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수출도 1.5% 증가에서 멈췄다. 설비투자(-8.1%), 건설투자(-3.3%)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는 오히려 역성장했다. 4분기로만 보면 건설투자가 6.3% 증가했고 설비투자(1.5%)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수출이 0.1%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20일 현재 전년동기 대비 0.2% 줄었다는 점이 불안하다.

그나마 OECD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지난해 보다 좋아질 것이라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 역시 당초 2.5%까지 봤다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 요인 등으로 0.2% 포인트 줄인 것이라 마음 놓기는 어렵다. 2%에서 2.3% 성장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신한금융,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선정

국내기업 중 최초 8년 연속 전세계 기업 43위로 선정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에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8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100은 캐나다의 미디어 그룹 및 투자 리서치 기관인 코퍼레이트 나이즈(CorporateKnights)가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지수다. 전 세계 7395개(매출 10억 달러 이상 상장사)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채무관리, 리더십 다양성 등 21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00대 기업의 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

종 명단을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글로벌 100에 선정됐다.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세계 기업 43위로 선정됐다. 전세계 금융회사 가운데서는 ING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울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가했다.

신한금융이 뛰어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조용병 회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해 온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국방부 △ 전력정책관실 전력계획과장(방위사업청서 파견) 박정은 △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용승일 △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김선봉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장 차용국 △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 노정관 △ 방위사업청 파견(전투차량사업팀장) 최원복

◆삼성증권 △ 부사장 승진 △ 리테일부부장 이재훈 △ 전무 승진 △ SNI본부장 박경희 △ 상무 승진 △ 전략기획담당 김범구 △ 강서지역본부장 김홍호 △ 기업금융2본부장 이상현 △ 법무팀장 황은아

◆삼성자산운용 △ 상무 승진 △ 유영재 채권운용본부장 △ 박민재 경영지원팀장

◆삼성카드 △ 부사장 승진 △ 박경국 △ 전무 승진 △ 김상우 △ 최정훈 △ 상무 승진 △ 윤한주 △ 조은경 △ 황성원

◆삼성생명 △ 부사장 승진 △ 박종문 △ 전무 승진 △ 김원희 △ 이경복 △ 이성열 △ 상무 승

진 △ 김상필 △ 이상희 △ 이성환 △ 이팔훈 △ 이호선 △ 최창희 △ 한원기

◆삼성화재 △ 전무 승진 △ 김규형 △ 김인 △ 이호현 △ 정현 △ 상무 승진 △ 곽승현 △ 구영민 △ 김철영 △ 양권진 △ 원동주 △ 이상동 △ 최부규

◆삼성서울병원 △ 전무 이형배

부음

▲박철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씨 별세, 서정희씨 남편상, 박종림(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박종우(하트성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조혜원씨 시부상, 박진우·박준우·박성민·박성준씨 조부상 =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4시30분. ☎ 02-2072-2020

▲장태영씨 별세, 장창원(자영업)·장정아(유치원 운영)·장경아·장성아씨 부친상, 정현정씨 시부상, 유성재(동진세미점 상무)·정종원(제일모직부장)·이성국(사업)씨 장인상, 장요한·장주하

씨 조부상, 유지은·정은명·이예원씨 외조부상 = 22일 오전 1시 20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시 시간 미정, 장지 분당 메모리얼 파크. ☎ 031-787-1501

▲김선미(창무예술원 예술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씨 별세, 조정제(㈜DI 사외이사)씨 부인상, 조혜인(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박사 과정)씨 모친상 = 21일 오후 9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오전. ☎ 02-2227-7556

▲김애자씨 별세, 서유찬(자영업)·서기찬(위키트리 편집국장)·서미라씨 모친상, 문세리·김희진씨 시모상, 조수현씨 장모상 = 21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3일 낮 12시30분, 장지 김포 청솔수목원. ☎ 031-900-0444

▲송정례씨 별세, 이철식(한국지엠 창원관리 담당 이사)씨 모친상 =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성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 055-750-8448

떡국·전, 명절음식 담은 도시락... 혼설족의 설시세끼

(혼자 설날 보내는 사람)

GS25 '정성가득 12찬 도시락' 양념돈찜·오미산적·동태전 등

CU '대왕 스펀 덮밥 도시락' 8.5×17.5cm... 압도적 비주얼

세븐일레븐 '한상도시락' 등 4종 **이마트24** '사골떡만두국도시락'

명절을 혼자 보내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명절 기간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람인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가에 살지 않는 직장인 640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귀향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귀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존 직장인의 74%가 귀향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미혼 직장인의 경우 57.3%가 귀향 계획을 밝혔다. 1인 가구가 미혼직장인임을 감안하면, 42.7%가 귀향 계획이 없는 것. 이에 편의점 업계가 앞다투어 설 명절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했다.

GS25는 고기와 전, 나물이 골고루 든 '정성가득12찬도시락'을 출시했다. 양념돈찜, 떡갈비구이, 오미산적, 동태전, 동그랑땡가 메인 반찬이다. 여기에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등의 나물을 추

가해 12찬을 구성했다. 디저트로 미니 약과가 들어있다.

설 연휴기간인 24~27일 GS25 애플리케이션 '나만의냉장고'를 통해 주문 도시락 6종 수력 고객에게 전통 과자를 100%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CU는 CJ제일제당과 함께 특수 개발한 초대형 스펀으로 만든 대왕 스펀 덮밥 도시락'을 21일 출시했다. 설날을 겨냥한 명절 도시락으로 가격은 4000원이다.

대왕 스펀 덮밥 도시락에 담긴 스펀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7.5cm로 기존 제품 대비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넓이 기준 일반 스펀 보다 약 5배 더 큰 사이즈로 도시락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밥 위에 이불처럼 깔려 있다.

스팸과 계란 지단을 밥 위에 함께 올려 스펀의 특유의 짭조름한 햄 맛과 조화를 맞춰고 단호박 셀러드와 볶음 김치도 함께 구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토마토 케첩도 동봉되어 있다.

그 동안 업계에서 내놓은 명절 도시락들은 전, 잡채, 나물 등 전형적인 명절 음식으로 구성됐지만 CU는 연휴 기간 도시락을 이용하는 명절 나홀로족들이 대부분 20~30대 젊은층이라는 것에 착안해 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절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로 스펀을 꼽고 있으며 특히, 1~2인 가구 젊은층에서 스펀은 밥도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매출 동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연히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3개년 명절 기간 스펀 매출은 전년 대비 2017년 12.1%, 2018년 29.8%, 2019년 15.6% 매년 꾸준히 두 자릿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편의점들이 명절 앞두고 특색있는 도시락을 선보이는 이유는 명절 기간 도시락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명절 기간(설+추석) 도시락 매출은 지난 2018년 25.9%, 지난해 23.5%로 매년 20%대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명절 대표 음식들을 간편식으로 선보였다. '한상도시락', '사골왕만두한그릇', '오색잡채', '소반 사골떡국' 등 총 4종의 간편식을 시리즈로 내놔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상품도 준비했다. 세븐일레븐 가정간편식 브랜드 '소반'의 상품인 '사골떡국'은 진한 사골국물 육수에 쫄깃한 식감의 국내산 쌀떡을 넣어 만들었다. 소



고기, 김, 계란 등 고명의 맛과 질감을 살리기 위해 급속동결 건조한 불려를 사용했다.

이마트24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골떡만두국도시락을 선보였다. 소스와 뜨거운 물을 붓고 렌지업하면, 간편하게 떡만두국의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속이 꽉 찬 CJ제일제당 손만두 3개와 밥, 무 석박지로 구성된 이번 상품은, 국물 도시락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도시락 반찬으로 들어가는 김치(25g)보다 3배 이상 많은 양(85g)을 담아내는 등 음식점에서 즐기는 듯한 떡만두

1 GS25 정성가득도시락 2 이마트24 사골떡만두국도시락 3 CU 대왕 스펀 덮밥 도시락 456 세븐일레븐 명절 간편식 시리즈. /각사

국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명절 피로 풀어줄 아이템 여기 모였네~”

이마트, 포스트 명절 마케팅

코지마·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행사카드 적용 최대 15% 할인

내달 5일까지 레고 클리어런스 베테케이크 등 상품 46종 40%



안마의자 /이마트

이마트가 명절 직후 건강·완구 수요를 잡기 위해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마트는 오는 29일까지 건강가전/식품 및 완구, 청소용품 등 총 200여종의 행사상품을 최대 55%까지 저렴하게 선보인다. 일반적으로 명절 연휴 직후는 대표적인 유통가 비수기로 여겨지는 만큼, 이마트는 해당 기간 고객들이 주로 찾는 상품이 무엇인지 분석해 맞춤형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먼저, 제수음식 마련과 귀성길 운전 등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건강가전, 건강식품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마트가 2019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설, 추석 직후 1주일간 안마의자·안마기

매출이 당해 연도 주간 평균 대비 각각 71.2%, 108.3%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이마트는 행사기간 명절 피로를 달래줄 '코지마안마의자마스터', '바디프랜드안마의자엘리자베스'를 행사카드 결제시 최대 15%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달력미니마사지기(S+대왕패드 2입팩)'도 정가에서 2만원 할인된 5만 9800원에 선보인다.

건강식품 대표 상품으로는 '고려은

단 진심을 담은 아연/철분/엽산 3종(각 30정)'을 각각 기본가 1만 8000원에서 50% 할인된 9000원에 판매하고, 이마트e카드 추가 10% 할인혜택(할인가 8100원)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과 더불어 완구 대목으로 자리잡은 명절 시즌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완구도 풍성하게 기획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2018년 월별 완구 매출 순위는 12월>5월>9월>2월 순을 나타냈으며, 2019년의 경우 12월>5월>2월>9월 순을 기록하는 등 명절을 전후로 완구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마트는 2월 5일까지 레고 클리어런스를 진행해 '베테케이크', '스타워즈 제국군 AT홀러' 등 총 46종의 상품을 40% 할인해 판매하고, 레고 7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으로 레고 짝짝이 쥐(전점 5300개 한정)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부모님 취향저격 설 선물로 효자 등극

네파 구스함량 높은 '경량 다운재킷'

SK매직 세척·건조·보관기능 통합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선보여

에코백스 로봇청소기 '디봇 U3'



네파 경량 다운재킷 /네파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부터 본인들도 어엿한 부모가 되어 부모님댁을 방문하는 중년층까지 연휴를 앞두고 모두 선물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을 터. 부모님을 위해 조금 더 세련되고, 해당 연령대에서 가장 관심가지는 아이템을 찾아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 **활기 넘치는 부모님께는 실용적인 아이템이 제격!**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도 유지하고 친구 만나시는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부모님께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선물도 좋지만, 바로 착용하고 나가서 친구분들께 자랑도 하고 자신이 실제 바로 활용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꼭 필요한 아이템을 파악해 선물하면 좋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경량다운재킷인 남성용 루이스다운재킷과 여성용 베라 다운재킷을 추천한다. 가벼운 무게에 구스 함량이 높아 보온성은 우수하면서 어느 옷이나 매칭에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온도가 낮을 때에는 아우터 속에 이너로 입고, 다가오는 간절기에는 편안한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다.

◆ **명절증후군에서 해방!**

SK매직은 세척, 건조, 보관기능을 통합한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를 선보였다. 정수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물로 식기를 세척하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이동하며 회전하는 와이드 무빙 세척 날개와 상단 세척 날개, 후면 세척 노즐이 만들어 낸 고온, 고압의 물살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로봇청소기를 선물하는 것도 추천한다. 에코백스는 최근 디봇 U3 라인프렌즈 브라운에디션을 국내 출시했다. 인공지능 스마트 내비 기술로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탐색하고 오즈모™ 물걸레 청소 기술로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SK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LG전자 건조기, 에코백스 디봇 U3 라인프렌즈 브라운에디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각사

GS리테일 북드림 캠페인... 책 2만권 전달

GS리테일이 이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진심어린 나눔에 앞장서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GS리테일은 21일 사회공헌 단체인 Thanks Give(이하 팽스기브)에 방문해 2019년에 모은 도서 1만 9706권을 전달했다.

GS리테일은 책(Book)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꿈(Dream)을 전달(드림)하자는 취지의 '북드림(Book Dream)

캠페인'을 통해 2019년 말까지 총 11만 7840권의 책을 기부했다.

2013년부터 GS25 가맹경영주 협의회가 북드림캠페인을 알게 되고 동참하게 되면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는 고객이 352권을 기부한 최초의 사례가 탄생했다. 그 결과 지난해만 1만 9706권, 9년간 누적 11만 7840권의 책을 기부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 끌어냈다. /신원선 기자



박명석 GS25김대중센터점 경영주(왼쪽)와 237권의 책을 기부한 이수지 스토어매니저가 매장 앞에서 기부하는 책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리테일

유한양행의 글로벌 진출 전략

기술 수출, 인재 교류, 유럽 거점 '3중 포석'

2018년부터 맺은 기술수출 3.5조 글로벌 대학 회원과 네트워크 강화 레이저티닙 등 신약, 유럽 임상 염두

유한양행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거점 확대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에도 2조원에 달하는 기술수출을 달성한 유한양행은 올해 기술수출뿐 아니라 인재 교류를 통한 새로운 오픈이노베이션에 도전한다. 해외 법인도 유럽으로 확대해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연구개발(R&D), 글로벌, 개발 부문을 포함 자회사 및 해외 법인 등 총 25명이 참석해 다양한 부문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와 NASH 치료제 90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을 달성한데 이어 7월에는 베링거인겔하임과 1조원이 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



유한양행이 UC버클리를 방문해 R&D 인재 리쿠르팅을 위한 기업 소개를 하고 있다.

행이 2018년부터 맺은 기술수출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성과다. 유한양행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글로벌 빅파마들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추가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기술수출에 대해 파트너들과 상세한 올해의 일정을 공유하고 이후의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들에 대해 협의했다”며 “현재 유한이 보유하고 있

는 임상단계 수준의 물질과 초기 개발 물질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아웃을 목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라이선스인에 대한 파트너링도 진행했다. 항암제와 NAHS 분야가 주요 타깃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례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한양행은 우수한 글로벌 R&D인재들을 리쿠르팅 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고, UCSF, UC버클리,

스탠포드 등 총 3개 대학의 KOLIS 회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 3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회사 소개와 연구개발 분야 소개, 면역항암제인 이문온시아를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제약사가 리쿠르팅을 위한 교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양행 윤태진 글로벌 BD 팀장은 “유한양행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확충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넘어선 한차원 높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물질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유럽 진출을 타진한다. 유한양행은 2018년 미국 샌디에이고와 보스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에는 호주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넓혀가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레이저티닙 등 신약의 다국가 임상을 염두에 두고 아직 진출하지 못한 유럽 내 국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유럽에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이디야커피,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63억 조기지급

이디야커피가 상생경영 차원에서 설 명절 전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설, 추석 등의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지급 해왔다. 이번 조기 지급 규모는 103개 업체 대상 약 63억원이다.

이디야커피는 이 외에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협력업체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시행 중이며, 우수 업체에게는 포상금을 별도 집행한다.

/박인용 기자



CJ푸드빌

푸짐한 설맞이 할인이벤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더플레이스’·‘제일제면소’·‘계절밥상’·‘CJ푸드월드’ 그리고 ‘N서울타워’가 CJ ONE(CJ올리브네트웍스 운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 맞이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CJ ONE 앱에서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천명에게 5개 브랜드의 할인 및 서비스 메뉴 쿠폰을 제공한다. 다운받은 쿠폰은 2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동국생명과학 신의료기술 기기 판매대행 계약 ‘펙수프라잔’ 멕시코 수출

<PRP 시술>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시술 업무 협약 누구든지 쉽게 ‘버피코트’ 추출 가능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13일 의료기기 전문기업 ‘굿모닝바이오’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PRP) 시술’을 위한 업무 협약 및 ‘프로-피알피 키트’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국생명과학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굿모닝바이오와 함께 PRP 전문 브랜드 ‘프로-피알피(PRO-PRP)’를 선보이고,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판매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신의료기술로 선정한 PRP 시술은, 환자의 혈액에서 뽑은 유효 성분을 주입해 염증이나 통증 질환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상과염(팔꿈치 관절 염증)에서 PRP 시술이 기존



굿모닝바이오 황의재 대표(왼쪽)와 동국생명과학 기원철 팀장이 지난 13일 진행된 동국생명과학과 굿모닝바이오의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법과 비교해 시술 후 6개월간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를 보인 유효한 기술’임을 명시했으며, ‘시술에 따른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신약후보물질 도출 위해 AI도입

스탠다임과 공동연구계약 체결

한미약품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첫 단추인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AI(인공지능)도입을 본격화한다. 한미약품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스탠다임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신약개발 초기 연구 단계에서 AI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탠다임은 인공지능 기반 선도 물질 최적화 플랫폼인 ‘스탠다임 베스트’ 등 자체 개발 AI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항암, 비알코올성지방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의 제약기업과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 협력으로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은 한미약품 주도의 상업화 개발(임상·생산·허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탠다임 김진한 대표는 “제약분야의 AI 기술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약품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AI로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은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펙수프라잔’ 멕시코 수출 40兆 세계무대 공략 시동

대용제약, 2022년 하반기 발매 목표 기술료 포함 약 5000만 달러 규모 멕시코, 중남미서 두번째로 큰 시장

대용제약의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 포문을 열었다.

대용제약은 ‘펙수프라잔’의 멕시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용제약은 펙수프라잔의 이번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40조원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계약 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한 약 5000만 달러 규모로, 빠른 현지 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펙수프라잔’에 대한 허가를 보유한 대용제약이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Moksha8)’에 제품을 공급하고, 목샤8은 현지 판매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대용제약의관

나랑드사이다

연평균 20% 매출 상승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가 4년 연속 매출이 성장했다. 나랑드사이다는 1977년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발매 후 웰빙 트렌드에 맞춰 리뉴얼해 2010년 재출시했다.

새로워진 나랑드사이다는 제로 칼로리에 설탕, 보존료 모두 첨가하지 않아 ‘4 Zero’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다.

나랑드사이다는 2010년 출시 직후 칼로리에 민감한 2030 여성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힘입어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나랑드사이다의 매출액은 160억 원(소비자가 기준)을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 매해 평균 2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노광수 나랑드사이다 브랜드 매니저는 “올해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중학생 1600명에 꿈나눔 '삼성드림클래스'

5개 대학서 겨울캠퍼스 수료식 대학생 멘토로 '나눔의 선순환'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퍼스가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22일 전국 5개 대학에서 드림클래스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는 삼성 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정은승 사장이 참석해 학생들과 멘토를 격려했다. 정 사장은 "중학생, 대학생 모두가 각자의 꿈을 찾고,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2012년부터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학생에 대학생 멘토로 붙여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전국 읍·면·도서지역 중학생 1600여명과 대학생 멘토 540여명이 참여했다. 누적으로는 중학생 8만2000여명, 대학생 2만3000여명이 드림클래스를 거쳤다.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모습.

/삼성전자

참가자들은 3주간 대학교 캠퍼스에서 멘토들과 학습하며 영어와 수학을 집중 학습했다. 지난 여름캠프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코딩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육성 기회도 가졌다. 음악회 관람과 대학 전공 박람회도 참가해 꿈과 재능을 모색

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학창시절 배움을 받았던 학생이 대학생이 돼 멘토로 참여하는 '나눔의 선순환'도 이어졌다. 이번에만 72명, 지난해까지 누적 194명이 드림클래스 출신 멘토로 활동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U+, 청각장애인 22명에 보청기 전달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와 공동으로 22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27대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동료간 칭찬감사 메시지를 보낼 경우 1건 당 1000원을 적립, 기부하는 '칭찬 감사 일파만파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금은 전국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에 사용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랑의 달팽이와 협력해 고가의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각장애 아동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총 57명의 청각장애인에게 63대의 보청기(총 63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지난 2019년 12월 LG유플러스와 사랑의 달팽이가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을 위해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바이러스의 습격



기지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새해 시작과 함께 A형 독감이 찾아왔다. 지난 11월 미리 맞은 4가 백신도 소용이 없었다. 이른 아침 병원을 찾으니, 마스크를 쓴 대기자가 이미 30명을 넘어섰다. 의사는 "지난 연말부터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며 "예방접종을 한 환자 대부분"이라고 했다.

백신 무용론은 매년 반복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월 그해 겨울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 종류를 권고하고, 제약사들은 대비한 백신을 제작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독감에 걸리는 사례는 빈번하다. 2017년에는 WHO의 예측이 빗나가는 미스매치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은 3가, 4가 백신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H1N1과 H3N2지만, 예방효과는 적었다. 의사는 "미스매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농천게 있는 것 같다"며 "A형 매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했다.

치료제 수급도 문제다. 기자는 병원에 링거액으로 된 독감

치료제(GC녹십자 '페라미플루')를 요구했지만 품절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페라미플루는 1회 투여만으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주사제로, 5일동안 복용해야 하는 타미플루보다 각광을 받는다. 올 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페라미플루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뒤늦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지만 백신도 부족한 상태다. 4가 독감 백신은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으며, 3가 백신도 재고가 남은 병원을 수소문 해야 맞을 수 있다. 판매가 안된 백신은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급이 늘 빠듯하게 이루어지는 탓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중국 내 감염자는 300명이 넘었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퍼졌으니 전염력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도 바이러스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판데믹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매년 겪는 독감에도 구멍이 뚫린 감염병 대응 체계를 믿어도 될지 걱정이다. 부디, 건강한 설 연휴 보내길 바란다.

/seile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3일 (음 1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원하는 바가 있으면 자식에게도 표현하라. **48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 **60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비옥한 땅이 되겠다. **72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 **84년생** 벼마타다 자칫 떨어진다.
- 37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4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단처하다. **61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다. **73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발아래 깔려 있다. **85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 38년생** 자식 문제에 끼여들지 마라. **50년생** 매매에 어렵던 문제가 풀린다. **62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 **74년생**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상대에게 힘이 된다. **86년생** 기다리던 금전 문제가 풀리는데 차량은 조심하라.
- 39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51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인다. **63년생** 내가 놓은 밧에 내가 걸린다. **75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87년생** 직장인은 특히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 40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니 꾸준히 노력. **52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6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76년생** 동분서주해야 별 이익은 없다. **88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 41년생** 길을 나서면 우연한 행운이 온다. **53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65년생** 참고 기다리는데 고통받던 구슬수가 해결된다. **77년생** 오늘날만큼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라. **89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꼭 확인해야 한다.

- 4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54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마음이 쓰인다. **66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져 버린다. **78년생**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해야 한다. **90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정직하게.
- 43년생** 헛된 희망이 눈을 가린다. **55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다. **6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생** 과거 인맥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91년생** 재물로 인한 분쟁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
- 44년생** 용미, 소피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56년생** 고집을 피우면 부모도 외면하니 적당히. **68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나 오니 감사하다. **80년생** 먹을 복이 많으니 소회제 준비. **92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 45년생** 현실에 만족하고 객기를 부리지 마라. **57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69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81년생** 작은 일에 일회일비하지 마라. **93년생** 힘들지만, 성의를 다하면 행운이 온다.
- 4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금전운이 상승. **58년생** 개척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70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다. **82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94년생** 책임진 일을 주변 도움으로 쉽게 마무리.
- 47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59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승진 기회가 온다. **71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83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95년생** 도전하지 않으니 기회도 없다.



김상회의四季

양보해 보라

얼마 전의 시절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적잖이 볼 수 있었다. 부자들과 중산층이 강남에 포진해 있다 보니 요즘은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경우가 힘들다 얘기한다.

그런데 올해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상관의 기운이 강한 해여서 개인이나 사회에서 결출하고 혁혁한 인물로 대단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 지금은 1월이다. 음력 7월 이후 연말 지나 보면 알게 된다.

쥐들은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어 닥쳐올 일을 미리 감지한다. 사람 쥐피들도 환경에 적응력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2월 4일 입춘(入春) 지나면서 경금(庚金) 임수(壬水) 병화(丙火) 갑목(甲木)의 구조가 맞게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자. 강남에서든 개천에서든 인생을 훌륭히 개척하여 수상 정도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외중에 개띠 말띠 호랑이띠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움직이는 게 좋다. 재살이 드는 해인데 달리 말해서 수옥살 이라고도 한다. 수옥살은 어딘가에 갇히는 걸 말한다. 갇힌다는 의미는 꼭 교도소 같은 곳만 일컫는 건 아니다. 남들이 외면하거나 따돌림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것도 수옥살에 해당한다.

집안에서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면서 끼리끼리 갈라질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부서로 가면서 혼자만 곤란한 지경이 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예견되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양보하는 게 좋다.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각자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니면 고난을 이겨내는 건 어렵지 않다. 모쪼록 세상 복되고 좋은 기운이 가득 찾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2				8	1	5
8	1						3	7
1	7		8		5		4	9
			6		7			
		4				5		
9			3		4			2
	5							8
	4	8				3	6	

				1	4	6		
6		9	5	3	8	1		7
	3	7	8			2	9	6
2		8					7	3
	1	5	3		7	2	4	
8		4	2	5	1	3		6
					9	8	4	

수도쿠 정답

1	9	5	6	2	8	7	3	4
7	8	6	1	9	3	4	5	2
2	5	1	7	8	4	9	6	3
8	2	4	5	6	1	7	9	8
3	1	2	4	9	6	8	5	7
6	7	9	3	8	5	2	1	4
4	3	7	2	5	6	9	1	8
5	1	8	9	4	2	3	6	7
9	6	2	8	1	7	5	4	3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74호

‘TK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로 군위·의성에 짓는다

공동후보지 점수 단독보다 앞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 접근성 우수 중·장거리 국제노선 활주로 건설 年 1000만명 수용하는 편의시설 도로 등 확충, 2026년 개항 목표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선다.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게 나왔다.

◆의성 비안·군위 입지조건은

주민투표에서 선택을 받은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항공기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확장성과 지역 공동 발전도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공동후보

지역은 기존 중앙고속도로 외에 상주-영덕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청, 강원 남부, 경기 남부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다.

대구시와 신도청 생활권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데다 구미산업단지의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다.

공항 이용객의 최대 수요처인 대구권 역에서도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통해 대구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다.

중앙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25km 구간 확장 계획 및 2021년 완공 예정인 대구4차 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감안하면 대구시의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항보다 2배 이상 넓이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에 현재 대구공항보다 2배 이상 넓은 땅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건설 이후 항공 수요 변화에 따른 확장까지 고려했다.

이곳에는 유럽, 북미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길이 3.2km 이상 활주로를 건설한다.

시는 활주로 2개를 건설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으로 하나씩 사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또 다양한 국제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충분한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1000만명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규모로 지어 각종 스마트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춘다.

화물터미널은 항공 물류량을 고려해 건설하고, 여객터미널과 분리한다.

◆2026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공항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3억원을 배정해 공개입찰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1년간 민간·군 공항시설 건설계획과 총사업비 산정, 이전지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통합신공항 위상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교통망 확충...공항 접근성 높인다

대구시는 도로, 철도 건설로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구에서 신공항 이전지까지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확충한다.

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개통, 대구 북구 조야동~경북 칠곡군 동명면 간 광역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4차 순환도로는 내년에,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동대구역 및 서대구고속철도역(내년 개통 예정)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

그러나 김명만 군위군수가 개표 결과에 불복해 점수에서 뒤진 우보면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김홍기 기자 gj2136@metroseoul.co.kr

“연휴에 초중고 374교에 무료 주차하세요” 박원순 “시민이 시장”... 신년 업무 첫 공개

서울시교육청 운동장·주차장 개방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인 24일~27일까지 4일간 서울 시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초중고 374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 가능한 학교와 개방시간 등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면 사전에 해당 학교에 확인하고 문의사항도 학교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한용수 기자 hys@

서울시 대시민 업무보고 개최

시민·외부 전문가 80여 명 초청

서울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신년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실·본부·국장, 관계 투자·출연기관장과 정책 관계자에 대한 공모·초청을 통해 사전에 선정된 시민·외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신년 업무보고는 가장 치열하고 첨예하게 한해 농사를 고민하는 시간이며 내부적으로만 진행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제시정 철학에 맞게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인사말로 보고를 시작했다.

새해 업무 보고는 서울시의 한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다. 서울시 관계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 현장 모습.

/서울시

자는 “업무 공정성 침해나 이해관계자 반발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년 업무 보고를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며 “이 때문에 외부의 시각으로 보는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혁신창업 활성화 ▲청년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 등 올해 시가 추진할 4대 역점사업 내용을 각

분야 간부들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답게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제언이 나왔다.

혁신창업 지원과 관련해 한양대 최경철 교수는 “서울시 정책과 대학·민간의 서비스에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다. 궁극적으로 초기 지원체계는 민간에 이양하고 규제 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빈차’ 잘 보이게 ‘택시표시등’ 개선

서울시가 택시 표시등을 3배로 키워 빈차·예약 여부 시인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택시 200대를 대상으로 택시 표시등 개선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택시 지붕 위에 달린 외부 표시등(갓등)의 크기를 3배로 늘려 빈차와 예약 차량의 구분을 쉽게 하고, 미세먼지 등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 표시등 크기는 정면을 기준으로 가로는 40cm에서 36cm로 소폭 줄고, 세로는 14cm에서 46cm로 3배가량 커진다.



늘어난 부분에는 LED 등을 설치해 ‘빈차’, ‘예약’, ‘휴무’ 여부를 표시한다.

기준에 ‘빈차’나 ‘예약’ 여부를 표시하던 택시 내부 표시등은 외부 표시등으로 통합된다. 외부 표시등 측면 길이도 25cm에서 122cm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측면에는 LCD 패널과 각종 센서가 달린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3 | 해질 / 17:45

1월 23일(木) 음력 : 12월 29일

수도권 날씨 2~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경기도 485억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막는다

경기도가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국비 254억 원을 포함, 총 485억 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

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4억 원과 시군비 231억 원을 포함해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중으로,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수, 단속장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뚝뚝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1588-1940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스타필드
‘복’ 기원 퍼포먼스 등 행사

경방 타임스퀘어
뷰티·패션상품 할인 프로모션

IFC몰
전통놀이·이색간식 등 체험



강병인 캘리그라피 작가 붓글씨 퍼포먼스 /신세계프라퍼티



타임스퀘어 매장 /경방 타임스퀘어



IFC몰 설맞이 이벤트 /IFC몰

경자년 설을 맞아 복합쇼핑몰이 분주하다. 도심에서 편하게 연휴를 보내는 몰링족이 많아짐에 따라 복합쇼핑몰들이 쇼핑과 여가, 레저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풍성한 설 연휴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먼저, 쇼펄테마파크 스타필드는 전통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퍼레이드, ‘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새해 기념 행사들로 2020년 시작을 알린다.

전통 춤과 사자놀이를 흥을 돋우는 ‘설맞이 퍼레이드’가 26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설맞이 퍼레이드’는 총 22명의 공연단이 전통 음악 연주와 봉산탈춤과 사자놀이 등 역동적인 춤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만나는 대형 퍼레이드다.

공연에는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모양 탈, 신년 축하 대형 깃발이 소

품으로 등장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공연단이 직접 전통 간식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촬영도 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띄울 예정이다.

또한, 쥐의 해인 경자년을 맞아 ‘취해롭게 우리 모두 큰 행운을 쥐어보자’라는 테마로 강병인 캘리그라피 작가가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펼친다.

강병인 작가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준 고객들 위해 신년 덕담을 캘리그라피로 제작, 선물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사전 선착순 접수한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27일에는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 내달 8일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고양, 코엑스몰, 스타필드 시

티 위레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트릭샷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공차기, 미니골프 등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됐으며, 각 게임 별 정해진 미션을 성공하면 미니 스낵과 선물을 증정한다.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영업을 실시하고, 키즈 콘텐츠 및 뷰티, 패션 상품을 할인하는 ‘설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패션 라인인 아웃도어부터 스포츠, 아동복 등 폭넓은 브랜드가 참여한다.

노스페이스는 2020 SS 신상품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할인을 적용한다.

디스커버리 역시 금액별 즉시 할인 이벤트와 FW 상품 30% 세일 프

로모션을 진행한다.

뷰티 브랜드들은 ‘설 선물 대전’을 열고 스킨케어 제품을 대폭 할인한다.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등은 풍성한 설 기획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혜택을 선보인다.

한편, 타임스퀘어는 연휴 기간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정상영업을 실시하며 설날 당일인 1월 25일에만 오후 1시에 오픈한다. (병원 등 일부 매장 제외)

끝으로 IFC몰은 올해 유난히 빠르고 짧은 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몰링족들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 IFC몰 L3층 사우스아트트리움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는 전통놀이와 이색 전통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통놀이 마당에서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활쏘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과와 옛, 과자 등 전통 먹거리가 준비된 기프트존에서는 민속 고유의 간식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동반 고객 대상 캐릭터 풍선 서비스와 2020년 새해 소망을 적어주는 캘리그라피 서비스도 진행된다.

한편, IFC몰은 이달 말까지 최대 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겨울 정기세일도 동시에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1월 24일~27일) 동안 정상 운영하며, 설날 당일인 25일만 일부 매장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IFC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우리 정서에 ‘딱’... 2020 설 책임질 한국영화 세편 동시개봉

남산의 부장들 대통령 암살 전 40일 간 벌어지는 이야기

히트맨 비밀요원이 웹툰작가로 권상우가 펼치는 코믹 액션

미스터 주 : 사라진 VIP 동물 말이 들리면서 생기는 코미디



남산의 부장들 /쇼박스



히트맨 /롯데엔터테인먼트



미스터 주: 사라진 VIP /리틀빅픽처스

극장이 최대 성수기인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영화 세 편이 동시 개봉했다. 바로 ‘남산의 부장들’, ‘히트맨’, ‘미스터 주: 사라진 VIP’다. 내로라하는 연기와 배우 이병헌, 권상우, 이성민을 내세운 극과 극 매력의 영화 세 편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은 폭발적인 기대감과 입소문에 힘입어 개봉 3일 전인 일요일, 전체 예매율 1위에 등극한데 이어 높은 예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사회 이후 폭발적인 입소문을 입증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역대 설 연휴 최고 흥행작이자 1600만 관객 동원

작 ‘극한직업’의 개봉 당일 오전 9시 30분 예매량인 10만1682장을 하루 앞당겨 경신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배우들의 인생 연기 경신, 우민호 감독이 ‘내부자들’ 이후 새로운 명작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단의 고른 호평과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예매율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중이다.

영화는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

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설 연휴 전세대가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맞서 권상우 주연의 ‘히트맨’과 이성민의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코미디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히트맨(감독 최원섭)’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에이스 비밀요원 준(권상

우)의 코믹한 액션 원맨쇼다.

인간 병기 부대인 ‘방패연’이라는 비밀 프로젝트의 전설적 요원으로 활약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위해 죽음을 위장한 준은, 제2의 삶을 살게 된다.

드디어 웹툰 작가의 꿈을 이뤘는가 하면 연재하는 작품마다 악플 세례받기 일쑤.

결국 술집에 그리지 말아야 할 1급 기밀을 그려 하루아침에 초대박이 나지만 이로 인해 국정원

과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되고 만다.

작품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전개된다. 소재의 신선함을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리 짜임새도 나름 탄탄하다.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현실 연기와 비현실적인 만화적 소재가 편안하게 맞물려 부담없이 볼 수 있다.

‘미스터 주: 사라진 VIP(감독 김태운)’는 설 연휴 극장가에서 가장 신선한 내용을 담았다.

영화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태주(이성민)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갖 동물의 말이 들리면서 펼쳐지는 사건을 그린 코미디다.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태주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VIP를 놓치게 되고, 군견 알리의 도움을 받아 VIP를 찾아 나선다. 동물들의 말이 들린다는 소재는 기존 영화에서도 다뤘던 것이다. 그럼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스토리 전개가 영화에 빠져들게 만든다. 세 영화 모두 22일 개봉해 절찬리 상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산업] 영화·드라마·게임 무한확장 '황금알 낳는 웹툰IP' 06



Life

[바이오] 유한양행 글로벌 전략 기술·인재·유럽 '3중 포석' L2



3200만명 대이동... 24일 오전, 25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

<귀경>

고향가는길

23~27일 특별교통 대책기간 하루 평균 656만명 이동 예상 24일 9시, 25일 14시 가장 막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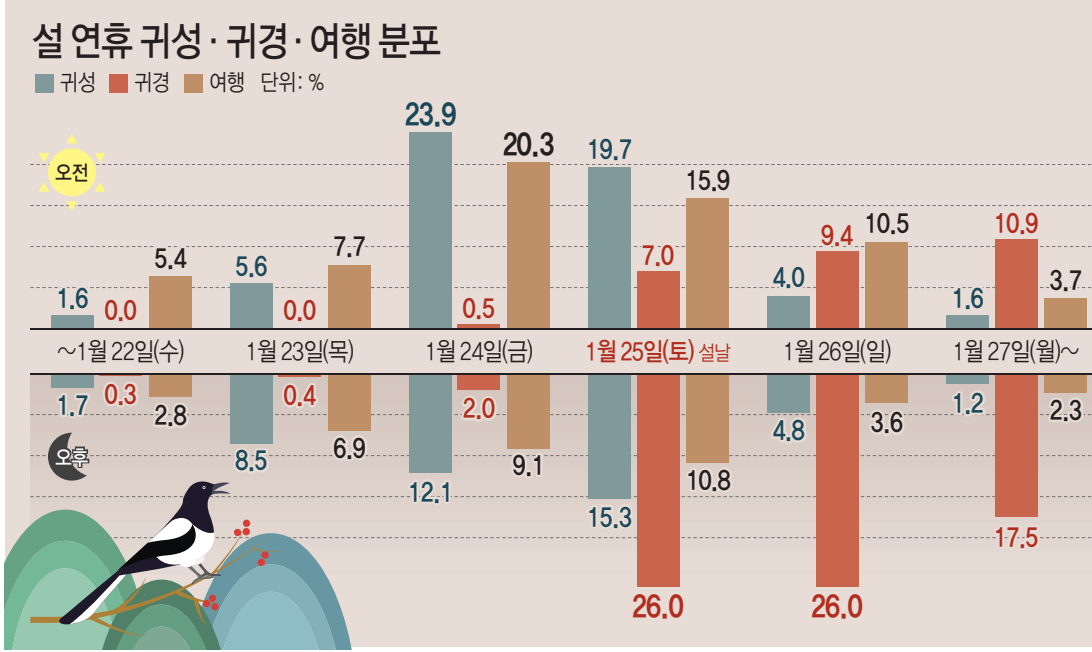
설 연휴 '민족대이동'이 시작됐다.

22일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32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혼잡시간대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과 25일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 부산~서울은 8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설은 귀성



주요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시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일 0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

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279만명이고 설날인 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이는 평시(326만명)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

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시간대(09시~10시)와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인 25일 오후 시간대(14시~15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

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다"면서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i964@metroseoul.co.kr

귀성길 지루할땐 모바일 게임 '한 판'

설 연휴 게임업계 이벤트 '풍성' 세뱃돈·복주머니 등 보상 지급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족·친지들과 모이는 시간은 즐겁지만, 전국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떠난 귀성객들의 행렬로 정체에 예상된다. 오랜 시간 지루한 고속도로에 머물러야 하는 귀성객들을 위해 즐길 만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 본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대목인 설 연휴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넥슨은 설날을 맞아 자사 모바일 게임 8종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V4'에서는 지난 21일부터 '황금빛 설날 이벤트'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뱃돈을 찾아 V4 게임 재화인 골드와 교환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M'에서는 31일까지 '설날 출석' 이벤트를 통해 원정대 콘텐츠 보상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보스 전리품 선택 상자' 등 매일 접속 보상을 지급한다. '트라하' 게임에는 27일까지 접속만



해도 새해 선물상자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엑스'에서는 내달 5일까지 일일 이벤트 업적을 완료해 가래떡을 만들 경우 '정제된 승급석'을 제공하며, '카이저'에서는 30일까지 새해맞이 이벤트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넷마블 또한 자사 대표 인기 모바일 게임 8종에서 혜택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연다.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접속하면 선물과

설날 복주머니를 제공한다.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은 29일까지 풍등을 날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주사위 보드 게임을 실시한다.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에는 출석만 해도 세븐나이츠 선택권, 천상의 돌, 스페셜 만능 조각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대표 명절게임 '모두의마블'도 설을 맞아 마블킹덤 신규 맵을 출시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도 자사 게임 8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서머너즈 워'에서는 내달 10일까지 '설날맞이 파티미션 이벤트'를 실시한다. 프로야구 기반의 '컴투스 프로야구2020'과 '컴투스 프로야구 포매니저'에서는 설날맞이 특별 접속 이벤트를 연다.

조이시티의 모바일 보드 게임 '주사위의 신'은 24일부터 27일까지 출석 이벤트를 통해 복주머니를 매일 1회씩 획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교통사고, 설 연휴 전날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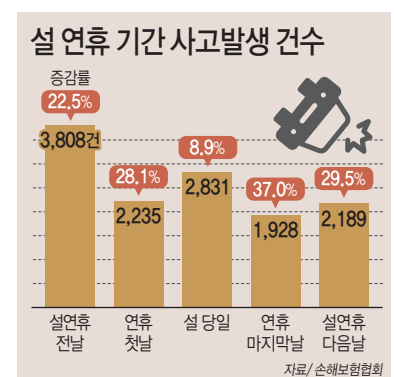
연휴 전날 사고건수 22.5% ↑ 설 당일 부상자 가장 많이 발생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22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평균 사고건수는 3808건이 발생해 평상시보다 22.5%가 증가했다. 부상자는 설 당일에 가장 많은 7184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소보다 약 53.2% 높은 수준이다. 설 당일, 성묘 등 가족 행사 참석을 위해 차량에 동반탑승자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 전날에도 평상시 일평균 4690명보다 25.1% 많은 5867명이 부상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 10세 미만 어린이와 19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는 각각 평소보다



59.6%, 80.6% 높은 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는 평상시보다 감소했다. 운전시간대로 살펴보면 설 연휴 기간은 평소와 다른 시간대 운행이 증가해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부상자가 45.9% 늘었다. 사망사고의 경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평균 0.6명으로 평소 0.2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26.3%, 2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험회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각별히 교통법규 준수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무풍의 1년은 겨울에 시작

이렇게 시계절 내내 쉬지 않고
우리집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니까?
지금부터 무풍에어컨과 함께
다가올 시계절을 준비해보세요

삼성 무풍에어컨



[冬]
한겨울에도
찬바람 걱정 없는 무풍청정으로
집안을 쾌적하게

[春]
봄철 초미세먼지까지
순식간에 없애는
피워청정

[夏]
여름 무더위도 완벽하게 잡는
서늘데이터 금속냉방과
와이드 무풍냉방

[秋]
편탁스런 가을 날씨에는
전기로 걱정 없이 산뜻하게
무풍제습

SAMSUNG

- 미국남부포도주회사(SWUSA) 청의기종, C&D(미국)가 있는 0.5m³ 이하의 비냉장용 무풍에어컨으로 정의를
- 내장형 미세먼지청정기형, AF+UV(254) - 서늘데이터 금속냉방(와이드 무풍냉방)은 해당 모델에 한정, AF+RX+... - 무풍제습은 해당 모델에 한정, 35~48°C